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53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年 2月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論文

16세기 夢遊錄의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瑛 美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6세기 夢遊錄의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y and Social History of Mongyurok in the 16th Century

2015 년 2 월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瑛 美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6세기 夢遊錄의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

指導敎授　鄭 吉 秀

이 論文을 敎育學碩士(漢文敎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14 년　10 월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漢 文 敎 育 專 攻

金　瑛　美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金瑛美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합니다.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敎授 韓睿媛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權純烈 (印)

審 査 委 員　朝鮮大學校 敎授 鄭吉秀 (印)

2014 년 12 월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目　　次

ABSTRACT ····· iii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 6

Ⅱ. 「南炎浮洲志」의 이념 ····· 10

1. 성리학적 존재론과 불교 비판 ····· 10

1) 一理論과 鬼神論의 대응 ····· 11

2) 현실 불교 폐단 비판 ····· 14

2. 민본주의 治世觀 ····· 18

1) 사회 모순에 대한 憤鬱 ····· 18

2) 군주론 ····· 21

Ⅲ. 「安憑夢遊錄」과 「元生夢遊錄」의 이념 ····· 24

1. 이념적 갈등: 「안빙몽유록」 ····· 24

1) 정치 현실의 체념 ····· 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소통의 不在 ····· 26
2. 天道 실현의 염원: 「원생몽유록」 ····· 31
1) 이상과 현실의 괴리 ····· 32
2) 死六臣의 節義 ····· 35

Ⅳ.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 ····· 45
1. 현실 불교 및 체제 비판: 「남염부주지」 ····· 45
2. 士林의 현실 인식과 대응: 「안빙몽유록」 ····· 53
3. 死六臣 復權運動: 「원생몽유록」 ····· 61

Ⅴ. 결론 ····· 70

참고문헌 ····· 7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y and Social History of Mongyurok in the 16th Century

Kim Young-Mi
Adviser : Chung kil-Soo Litt.D.
Major in Sino-Korean Literatur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specula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y and social history expressed in 「Namyeombujooji」, 「Anbingmongyurok」 and 「Wonsengmongyurok」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ocial conditions in the 16th century on narratives.

First, to examine the ideology they contained, it was discovered that they parodied the situation of the time. 「Namyeombujooji」 criticized the evils of real Buddhism based on Confucian ontology and suggested the democratic governing view that kings have to govern their country with virtue. 「Anbingmongyurok」 described abandonment of political reality by the dreamer who was engaged only in reading as he thought there was no communication, which caused ideological conflict. 「Wonsengmongyurok」 described the problematic reality of the time by citing past events, and allegorically criticized the situation of that time as in the opposition of Hungu party to the Salim party and the spilt of Salim through fidelity of the four loyal subjects and general comments on the society by Haewolgeusa, as well as expressing the ‘desire to realize th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ransfer of the capital.' The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and social history, the followings were known: At the time 「Namyeombujooji」 was written, Confucianism was not settled and shamanistic concepts and customs prevailed among the public and coexisted with non-Confucian elements such as Buddhism.

In addition, the status and trends of royal Buddhism were very much worse, and as King Danjong was dethroned and King Sejo replaced him, the ruling party was rapidly reorganized and as Confucian ideology fell, society was extremely unstable. Kim Si-Sieup suggested Confucian political logic in 「Namyeombujooji」 that a king should govern the country with virtue and courtesy and allegorically criticized King Sejo who abandoned himself to despotism. 「Anbingmongyurok」 looked into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elimination of exploitation and creating order in country districts in reformative politics of the Salim party which was a direct cause of Kimyosahwa, focusing on Shin Gwang-Han following Jo Gwang-Jo. The Salim party's reformative politics pursu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governing order while having two-sided relationships with innovative elimination of convention and former systems. Because of the radical politics of the Salim Party with Jo Gwang-Jo as a leader,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parties rose sharply. Therefore, Shin Gwang-Han who considered harmony of the two parties as a subject although he belonged to the Hungu party, had the attitudes of an onlooker and caused a lukewarm ending in a dream. 「Wonsengmongyurok」 described the fidelity of the four loyal subjects(Sayuksin) and the spilt in the society of high officials. From King Danjong' s restoration movement to when Lim Je wrote 「Wonsengmongyurok」, it discussed whether the subjects tried to restore the throne with fidelity. There were a few attempts to honor the fidelity the four loyal subjects showed by the Salim party who dominated the political situation after King Jungjong's restoration, but they were not accepted b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overnment authorization, and were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issue. Finally, King Seonjo intended to honor loyal subjects and patriots including Nosanun and Yeonsangun who were dethroned. Park Gye-Hyun, a government official, recommended the reading of 「Yuksinjeon」 to King Seonjo, convincing him that the Sayuksin were loyal subjects. However, it was a chance to judge them as insurgents.

Therefore, Lim Je criticized the justification for abdication of the throne making an excuse of God's will through Nam Hyo-Won's revengeful spirit in 「Wonsengmongyurok」 and made their fidelity and desire for revenge known with an indignant tone. 「Wonsengmongyurok」 was designed to reveal the limit of society and spilt Sadeaebu society as well as the absurdity of the past.

To sum up all this, the 16th century was an age of political strife when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Hungu and Salim were intensified. Literary people of that time needed an instrument called Mongyu(somnambul) to criticize the social problems of the time. Mongyurok accepted a biographical style and intended to show the social ideology allegorically through an instrument of fiction.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Mongyurok reflected the epic interest and intended to educate on ideolog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고는 “16세기는 政爭의 시대로 당시의 시대상황이 서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傳奇小說이라는 장르에서 이미 異界 체험의 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夢遊錄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한다.

朝鮮朝 소설사는 羅末麗初의 傳奇, 15세기 金時習(1435~1493)의 『金鰲新話』, 그리고 전성기인 17세기로 이어진다는 시각이 통념적이다. 조동일은 “소설사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까지에는 오히려 후퇴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蔡壽(1449~1515)의 「薛公瓚傳」과 申光漢(1484~1555)의 『企齋記異』 가운데 「何生奇遇傳」과 「崔生遇眞記」만이 소설로 볼 수 있으나, 그나마 되다만 소설이다”라고 하였다.[1] 즉 15세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후, 16세기 소설사는 전대의 성취도 계승하지 못하였고, 후대의 풍성함에도 미치지 못했던 ‘낙후의 세기’라고 평가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관념에서 볼 때, 16세기 소설사는 몹시 부진한 것으로 비춰진다. 창작적인 면에서 질적·양적으로 볼 때 전대와 17세기 왕성한 작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자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았다. “17세기가 소설사에서 큰 획을 그엇다고면 16세기에는 新羅·高麗시대의 설화와 傳奇를 계승하면서 본격적인 소설의 시대를 예비하였으며, 향유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설의 저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결코 낙후의 세기가 아니다”라는 견해이다.[2]

이렇게 16세기는 문학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5, 495면 참조.
2) 이와 같은 견해는 김현양, 정환국 등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김현양, 「16세기 소설사의 지형과 위상 -이념의 서사, 흥미의 서사, 욕망의 서사」, 김현양 외, 『묻혀진 문학사의 복원』, 소명출판, 2007, 16면 및 36면; 정환국, 「<설공찬전>의 파동과 소설 인식의 추이」, 같은 책, 221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

또한, 16세기를 주목할 점은 몽유록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것이다. 몽유록의 양식은 주인공이 꿈이라는 異界를 가상 체험하는 서사이다. 몽유 양식은 이전 시기인 15세기에 이미 『금오신화』의 「龍宮赴宴錄」·「醉遊浮碧亭記」·「南炎浮洲志」의 전기서사에서 활용한 수법이었다. 이렇게 전기라는 양식 속에서 활용되던 가상체험의 양식이 16세기에 개별 양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3)]

먼저 林悌(1549~1587)의 「元生夢遊錄」을 볼 때, 廢主 端宗과 死六臣의 節義를 빗대어 당시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금기 사안이었다. 같은 시각에서 전기의 양식으로 분류되는 15세기 『금오신화』의 「남염부주지」도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몽유 양식을 이미 잘 활용하고 있는 傳奇라는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몽유록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16세기에 요청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4)]

전기소설은 『금오신화』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16세기가 이룩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신광한의 『기재기이』와 임제의 「원생몽유록」이 놓여있다. 『기재기이』의 「安憑夢遊錄」과 「원생몽유록」은 異界의 체험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異界의 존재들과 만나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가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각 서사의 사건의 요소는 작가의 삶과 당시 사회를 우의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그러나 「안빙몽유록」은 갈등과 이념이 미약한 서사라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몽유록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부조리나 정치적 상황, 사회 풍자를 우의한다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본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의 「남염부주지」, 신광한의 『기재기이』의 「안빙몽유록」, 임제의 「원생몽유록」이 본고에서 논의될 작품이다. 16세기 전반기는 우리 서사 문학사에서 거의 주목 받지

---

3) 沈義의 「大觀齋夢遊錄」, 申光漢의 「安憑夢遊錄」, 林悌의 「元生夢遊錄」 등이 출현되었다. 몽유록의 양식은 가탁적으로 허구화한 방식이다. 작가가 현실세계에서 느꼈던 소외감 및 불만 등을 꿈이라는 장치로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정치적 욕망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의 장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4)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현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조현설, 「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김현양 외, 앞의 책, 121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신광한의『기재기이』의 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5]「안빙몽유록」은 몽유록의 嚆矢라는 점,「원생몽유록」은 몽유록의 전형에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사회적 주제를 띤 작품으로 문학사의 위상이 높다는 평가이다. 이들의 작품이 16세기에 몽유록이라는 새로운 양식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이념을 드러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서사에 담긴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16세기 정쟁의 시대에 당시 시대상황이 서사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선행 연구 검토

선행 연구의 검토는 먼저, 필자가 문제 제기한 목적과 상통하는 거시적인 연구를 살피고, 다음으로 미시적으로 개별 작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접근한다.

몽유록의 양식에 대하여 논의한 연구자로는 신해진, 조현설 등이 있다.

먼저 거시적으로, 신해진은 朝鮮中期 몽유록은 15세기 말 士林의 진출과 그에 따른 士論이 새롭게 형성됨에 따라 야기된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의의 속성을 통해 자기 변신을 꾀한 문학양식으로 보았다.[6] 또한 조현설은 허구적 수법이 16세기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표현의 도구로 취택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6세기에 비로소 생성된 몽유록은 역설적이게도 반유가적 양식인 전기의 허구적 장치를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허구를 통해 사대부적 이념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흥미를 통한 이념의 교화로 형식과 이데올로기가 불일치한다고 보았다.[7]

다음으로 좀 더 면밀하게 각각의 작품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 김시습의『금오신화』의「남염부주지」와 신광한의『기재기이』의「안빙몽유록」, 임제의「원생몽유록」은 작품 위상에 걸맞게 다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되었다.

---

5) 소재영은『企齋奇異』는 문학사 내지 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다(소재영,『기재기이연구』, 민족문화연구소, 1990, 88면 참조).
6) 신해진,『조선중기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284면 참조.
7) 조현설, 앞의 책, 141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먼저 『금오신화』의 「남염부주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소설사적 위상에 걸맞게 시대와 연구자마다 다양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이들의 논제 중에서 사상론적 논의의 선행 연구들만 중점 대상으로 살펴본다.

임형택, 조동일, 김명호 등은 작가의 철학 사상이 작품의 기반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임형택은 박생과 염왕의 문답에서의 논리는 곧 작가 김시습의 사상이며, 지옥을 부정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였다.[8] 또한 같은 맥락에서 조동일은 氣一元論의 이론, 김명호는 理氣二元論의 이론을 토대로 하였다고 보았으며, 김명호의 의견을 윤승준이 뒷받침하여 정립하고 있었다.[9] 비록 이들이 주장하는 원리는 같지 않더라도, 당대의 귀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작품이 갖는 소설사적 위치를 평가하였다.

한편, 문범두는 몽유구조를 차용한 서사적 의미 체계가 작가적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10] 이런 논의의 과정을 통해 김시습이 구현하고자 한 실상과 문학적 성취를 드러내고자 했다. 또한 김수연은 김시습이 서사를 통해 전환기 지식인의 신념 모색 과정과 그것을 공유하고자 한 소통의 바람을 담아내었다고 보았다.[11]

다음으로 『기재기이』의 선행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소재영, 유기옥 등이 소설사적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소재영에 의해 『기재기이』가 발굴·소개되면서 소설 세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소재영은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문학사적 의미를, 『금오신화』와 許筠, 임제, 權韠 등의 작품 사이에 시대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과도기적 변모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안빙몽유록」은 가전 기법을 활용한 자신의 처지를 형상한 몽유록의 효시 작품이며, 의인화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역사적 전

8) 임형택, 「현실주의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1, 29면 참조.
9)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변모」,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166~180면 참조;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35, 1984, 37~55면 참조; 윤승준, 「김시습의 귀신론과 ≪금오신화≫-<남염부주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학논집』 14, 1994, 253~281면 참조.
10) 문범두, 「<남염부주지>의 구성방식과 문제의식」, 『초기한문소설의 작품세계』, 국학자료원, 2005, 31면 참조.
11) 김수연, 「사상전환기 지식인의 방황과 신념 모색, <남염부주지>」, 『고소설연구』 33, 2012, 113~143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를 끌어들여서 명명하고 있으나, 몽중 세계의 행위가 연회나 작시에만 그치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한 강한 풍자성이나 이념 제시가 없다고 하였다.[12] 그리고 유기옥은 소재영의 선행연구의 성과에 더하여 전통적인 장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보았다.[13]

다음으로 신해진, 문범두, 엄기영 등은 작자 신광한의 삶과 정치적 이력을 토대로 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였다. 신광한이 훈구와 사림의 사이에서 士禍의 피해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가해자이기도한 신광한의 삶과 정치적 입장에서 논의하였다.[14]

또 다른 측면의 연구에서 신상필은『기재기이』의 작자 신광한을 정치적 측면이 아닌 문학적인 측면에서, 즉 관학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에「안빙몽유록」의 특징을 소재의 측면에서 사대부 문인들의 취향이 반영된 '흥미 추구'에 두고 있었다.「안빙몽유록」은 사대부 문인들의 취향이 짙은 '화원'을 소재로 도입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는 것이다.[15] 이는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자들이 논의한 맥락과 달리 새로운 접근이었다.

마지막으로「원생몽유록」의 선행 연구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작자설이다. 먼저 김태준에 의해 임제설이 언급된 이래, 장덕순의 김시습설, 이가원의 원호설이라는 논란이 팽팽하였다. 그 뒤, 황패강이 논의한 바에 의해 임제설이 통념으로 인식되었으나 양승민의 반론으로 원호설이 재거론 되었다. 이에 원용문은 이들의 논의를 중점으로 작자론적인 문제를 고찰하여 정리하였다.[16]

본고 진행과 부합한 방향의 연구에서 김춘택, 정학성, 신해진 등은 작자의 사상 또는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춘택은 당대의 현실과 밀접한

---

12) 소재영,「안빙몽유록」, 앞의 책, 27면 참조.
13) 유기옥, 『신광한의 ≪기재기이≫연구』, 한국문화사, 1999, 238~247면 참조.
14) 신해진,「안빙몽유록」, 앞의 책, 63면 참조; 문범두,「안빙몽유록」, 앞의 책, 110~117면 참조; 엄기영,「≪기재기이≫의 창작 방법 연구」,『16세기 한문소설 연구』, 월인, 2009, 137~146면 참조.
15) 신상필,「≪기재기이≫의 성격과 위상」, 김현양 외, 앞의 책, 242면 참조.
16) 김태준,『증보 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5, 78면 참조; 장덕순,「몽유록소고」, 우쾌제 편,『원생몽유록』, 박이정, 2002, 9면 참조; 이가원,「<夢遊錄>의 작자 소고」, 같은 책, 13면 참조; 황패강,「원생몽유록」, 같은 책, 51면 참조; 양승민,「<원생몽유록>의 작자문제의 허실」, 같은 책, 305면 참조; 원용문,「<원생몽유록>의 작자론적 고찰」, 같은 책, 51면. 작자의 문제에 대한 시비는 단행본으로 출간될 정도로 매우 많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꿈의 세계를 통해 端宗과 世祖의 알력 관계를 비롯하여 불합리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과 낭만주의 지향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17] 또한 정학성은 작자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세계나 역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반영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18] 신해진은 작자의 정치·사회적인 처지를 사림파의 등장 및 분화와 관련 시켜서 작가의 현실 대응을 규명하였다.[19]

가장 주목할 것은 정출헌의 논의로 문학의 정치학적 맥락에 초점을 두었다. 정치적 역정에서 문학의 힘을 통해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 死六臣의 의연한 충절, 구차한 삶을 거부했던 南孝溫의 충절을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환기시킨 작품으로 보고, 16세기 서사 문학에서 서사적 우언이 활발하게 창작, 유통된 것은 그 무렵 성리학적 이념의 확립과 함께 사림의 질서가 재편되던 시기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결말에 이름을 올린 원호, 최덕지, 김시습, 황여일 등은 남효온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후대 사람들의 정치적 산물이라고 하였다.[20]

이상으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몽유록의 서사는 시대를 반영한 정치학적 산물이라는 논의가 중점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특정한 작품과 단면적인 측면만 논의되었다. 이에 필자는 작가의 이념이 서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서사의 진행은 작자의 이념과 연관이 있고 작가가 처한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념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3. 연구 방법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몽유록의 서사는 시대를 반영한 정치학적 산물이라는 논의가 중점적이었다. 당시 작가가 처한 사회는 서사에 반영된 이념의 형성에 영향

17) 김춘택, 『우리나라 고소설사』, 한길사, 1993, 68면 참조.
18) 양승민, 앞의 논문, 99면 참조.
19) 신해진, 앞의 책, 106면 참조.
20) 정출헌, 「<六臣傳>과 <元生夢遊錄>-충절의 인물과 기억서사의 정치학-」,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3, 43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끼쳤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사에 반영된 이념과 당시 사회사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각각의 작품에 드러난 이념이 소설사의 흐름에서 16세기 사회상을 표출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16세기 정쟁의 시대에서 시대 상황이 서사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16세기에 몽유록이라는 새로운 양식 속에서, 이념과 사회상이 어떤 양상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傳奇이면서 夢幻 구조의 모티브를 차용한『금오신화』의「남염부주지」의 서사에 담긴 이념을 살피고자 한다.『금오신화』는 김시습이 金鰲山에 은거할 당시의 작품이다. 이때는 世祖의 왕위찬탈 사건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 방랑하다가 비로소 산문에 정착한 시점이다.「남염부주지」는『금오신화』의 여타 작품보다 우의성의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철학적·사상적 논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시습이 갖고 있는 이념이 서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

1절에서는「남염부주지」의 서사에 내재된 김시습이 지닌 귀신론과 종교관을 살피고자 한다. 조선조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국가 질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귀신이 문제가 되었듯이, 귀신 이야기는 이시기 소설의 주요한 제재가 되었다. 김시습은「神鬼說」을 써서 氣가 변하는 이치로 鬼가 변한다는 귀신론을 폈다.「남염부주지」에는 김시습이 귀신과 불교, 무속신앙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에「남염부주지」에서 나타나는 유교적 관념에서 이단시되었던 귀신론과 종교관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전기 주도적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성리학적 존재론에 영향을 끼쳤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절에서는 혼돈의 시대를 살다간 김시습의 이념이 서사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15세기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혼돈 상태였다.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등극하면서 집권세력이 급격하게 재편되었던 시기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새 왕조가 지배이념으로 내세운 신유가적 가치규범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이었다. 이는 당대 사회에서 가치관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김시습의 이념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Ⅲ장에서는 16세기 서사를 대표하는 신광한의『기재기이』의「안빙몽유록」과 임제의「원생몽유록」의 서사에 담긴 이념을 살피고자 한다.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속하는 몽유록은 단순한 꿈의 기록을 넘어서, 이야기 구조 내의 환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 속에서 작가가 갖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1절에서는 신광한의 「안빙몽유록」의 서사에 담긴 이념을 살피고자 한다. 세조의 왕위 찬탈로 야기된 사대부 사회의 분열은 거듭된 士禍와 黨爭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연구자들의 보편적인 시각이 「안빙몽유록」은 주제의식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내제된 이념을 살펴봄으로써 「남염부주지」와 「원생몽유록」과의 사이에서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절에서는 임제의 「원생몽유록」의 서사에 담긴 이념을 살피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당쟁에서 비롯되어서 마침내는 기득권층인 사림파의 내부 분열까지 발생하였다. 이때 기득권층에 대한 상대적 피해 의식에서 비롯되어 이념적인 입장까지 달리하고자 하는 문인부류가 출연하게 되었다. 임제는 김시습과 더불어 方外人으로 인정되는 당대의 문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다. 호탕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뛰어난 재성으로 문무를 겸비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친다. 거기에서 고뇌하고 좌절했던 그가 살아온 삶의 자취들의 현실문제가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제Ⅱ장, 제Ⅲ장에서 다루었던 「남염부주지」와 「안빙몽유록」과 「원생몽유록」에 담긴 이념을 종합하여, 작품들에서 표출된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를 추론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현실 불교 및 體制 비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5세기말 김시습이 살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혼돈 상태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儒佛 교체를 통한 신유학이 지배이념으로 확립되는 사상적 전환의 시기였다. 둘째,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등극하면서 집권세력이 급격하게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교적 이념이 실추되어 사회가 극심하게 불안한 시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회사가 서사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2절에서는 「안빙몽유록」의 주제의식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사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16세기 「안빙몽유록」이 창작되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中宗反正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대부 사이에 정치적 알력과 부침이 심하였다. 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 중소 지주 출신인 士林들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되는 변화과정과 사림들의 정치적 진출을 또 한번 좌절시킨 己卯士禍가 놓여 있다. 작자 신광한은 기묘사화의 被禍人이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작품에 적극 반영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광한은 상대적으로 몽유세계에서의 방관적인 자세의 설정과 미온한 결말을 낳게 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사회사의 관계에서 살피고자 한다.

3절에서는 「원생몽유록」에 표출된 死六臣의 節義와 사대부 사회의 분열을 논의하고자 한다. 「원생몽유록」은 단종과 사육신의 復權문제인 정치적 쟁점을 다룬 것이다.[21] 임제가 살았던 시기에는 충절의 인물들의 복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당쟁 및 기득권인 사림의 분열상이 더욱 악화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들 사회사가 서사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로 인해 16세기 정쟁의 시대에서 시대 상황이 서사에 끼친 영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 제Ⅴ장은 제Ⅱ장, 제Ⅲ장, 제Ⅳ장을 종합하여 결론을 짓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논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논의될 것이다. 15·16세기를 대표하는 일부 몽유록계 작품으로 한정하여, 16세기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를 논의하고 극명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쟁의 시대에서 사회사가 서사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21) 中宗朝에 사림파들이 재등장하여 적극적인 공론을 함으로써 단종의 복위문제, 사육신의 절의에 대한 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 문제는 임제가 「원생몽유록」을 창작할 당시까지도 미해결 사안이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南炎浮洲志」의 이념

16세기 夢遊錄의 양식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 傳奇의 양식 속에서 異界 체험 소재 서사로 유명한 작품으로 『金鰲新話』가 있다.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金鰲山에 은거할 당시에 창작한 산문집이다. 이때는 世祖의 왕위찬탈 사건으로 실의와 좌절에 빠져서 放浪하다가 비로소 산문에 정착한 시점이다. 「南炎浮洲志」는 『금오신화』의 여타 작품보다 우의성의 측면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다. 특히 철학적·사상적 논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시습이 갖고 있는 이념이 서사 속에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성리학적 존재론과 불교 비판

朝鮮朝 유교를 기본 이념으로 국가 질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귀신이 문제가 되었듯이, 귀신 이야기는 이시기 소설의 주요한 제재가 되었다.[22] 김시습은 「神鬼說」을 써서 氣가 변하는 이치로 鬼가 변한다는 귀신론을 폈다. 「남염부주지」에는 김시습이 귀신과 불교, 무속신앙 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남염부주지」에서 나타나는 유교적 관념에서 이단시 되었던 귀신론과 종교관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전기 주도적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성리학적 존재론에 영향을 끼쳤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시습의 사상에 대해서는 氣一元論, 二元論的 主理論, 혹은 理氣二元論 내지 主理論이라는 논란이 있다.[23] 기존의 연구 업적을 살펴서 이들을 바탕으로 「남염부주

22) 조선초기 儒家는 합리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무속이나 불교의 숭배 행위는 그른 것이라 하면서도, 제사를 정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귀신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 고려시대의 사고를 비판하면서 귀신을 정리하느라고 새로운 사상이 요구되었다. 한참 동안 논란을 거쳐 다른 귀신은 다 부정하고 후손이 지내는 제사에 감흥하는 조상의 혼령만 인정하는 理氣二元論의 귀신관이 정통의 자리를 굳혔다(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신이 인식의 의미」, 김현양 외, 앞의 책, 45면 참조).

23) 김시습의 귀신론의 대한 논의는 대체로 조동일의 견해인 '氣一元論'과 김명호의 견해인 '理氣二元論'으로 양분되어 진다. 김명호의 견해를 윤승준이 뒷받침하여 정립하고 있다. 본고는 이를 토대로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조동일, 앞의 책; 김명호, 앞의 논문; 윤승준, 앞의 논문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에서 드러나는 이념과 김시습의 사상인 귀신관을 살피고자 한다.

1) 一理論과 鬼神論의 대응

현실 세계에서 朴生은 일찍이 불교·巫覡·귀신 등의 모든 說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다. 비록 결단은 내리지 못했으나, 『中庸』·『周易』을 읽고 확고히 하여 一理論을 지어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란 무엇인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성을 말함일 따름이다. 본성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늘이 명한 바를 말한다.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낳으며, 기운으로 형태를 이루게 하고, 저마다 이치를 가지게 하였다. 이른바 이치라는 것은 일상 속의 세상만사가 저마다 법칙을 가짐을 말한다.[24]

박생은 세계 질서를 理와 氣의 작용으로 설명하였다. 현실에서 불교·巫覡·귀신설에 대한 의심을 가졌으나, 『중용』·『주역』과 같은 유교 경전을 통해 유교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다. 한 승려를 만나 '天理가 한 陰陽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라며 자신이 유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一理論은 유교적 이념의 토대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귀신론을 정교한 성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사유의 근본이 철저히 유교를 토대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인용문의 전반부에서는 氣一元論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미의 "陰陽과 五行으로써 만물을 만들 때 氣로써 형체를 이룩했는데, 理도 또한 稟賦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른바 이치란 것은 日用 사물에 있어서 각각 條理를 가지는 것이다"에서는 기일원론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25]

다음은 炎浮洲에서 炎王과 박생의 대화를 살펴보자.

---

24) "天下之理, 一而已矣. 一者何? 無二致也. 理者何? 性而已矣. 性者何? 天之所命也.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理亦賦焉. 所謂理者, 於日用事物上, 各有條理."(「남염부주지」, 박희병 표점·교석,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133면) 이하 「남염부주지」의 번역은 박희병·정길수, 『이상한 나라의 꿈』의 번역을 재인용한다.

25) 윤승준은 栗谷의 氣發理乘說을 연상된다고 했다(윤승준, 앞의 논문, 260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鬼'라는 것은 음의 영이고, '神'이라는 것은 양의 영이오. '귀'와 '신'은 조화의 자취요, 음양의 타고난 능력이오. 살아있으면 인물이라 하고 죽으면 귀신이라 하지만, 그 근본 이치인즉 다르지 않소.[26]

염부주에서 박생이 염왕에게 귀신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염왕이 귀신의 존재를 음양의 이치로 설명하는 것은 유교의 근본 이치와 같음을 말하는 것으로 기일원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살아서는 인물이고 죽어서는 귀신이라는 말에서는 앞뒤가 어긋난다. 음양의 작용이라는 귀신과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된다고 할 때의 귀신은 실제로 뜻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생이 또 묻는다. "세상에서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받는 귀신과 조화를 이루는 귀신은 서로 다릅니까?"하고 물으니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말한다.

옛날의 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소.

'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은 음과 양이 모이고 흩어지는 데서 비롯된다.'

천지에 제사 지내는 것은 음양의 조화를 공경해서이고, 산천에 제사 지내는 것은 기운의 변화에 보답하기 위해서지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근본을 주신 데 보답하기 위해서이고, 여섯 신에 제사 지내는 것은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지요. 이런 제사들은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오.[27]

옛 유학자가 "귀신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고 했지만 만물의 시작과 끝은 음양이 모이고 흩어지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래서 귀신은 음양의 작용이라고 造化之鬼神을 해명했다. 유교에서 제사를 받는 귀신과 이단에서의 귀신은 그 원리가 같은 것으로 음양의 작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마련했다. 부모를 섬기는 도리로 제사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고, 자연 순환에 따르는 天人合一의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다. 따라서 조상 제사나 천지 산천에 드리는 감사의 禮도 天地萬物과 生

26) "鬼者, 陰之靈, 神者, 陽之靈. 蓋造化之迹, 而二氣之良能也. 生則曰人物, 死則曰鬼神, 而其理則未嘗異也"(「남염부주지」, 137면)

27) "先儒云: '鬼神無形無聲. 然物之終始, 無非陰陽合散之所爲,' 且祭天地, 所以謹陰陽之造化也, 祀山川, 所以報氣化之升降也. 享祖考, 所以報本, 祀六神, 所以免禍. 皆使人致其敬也."(「남염부주지」, 137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命의 일체감을 나타내는 제사의 원리라 할 수 있다.[28] 이는 김시습의 귀신론인 기일원론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천지 사이에 오직 하나의 氣가 풀무질할 뿐이다. 그 理는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하며, 찼다가는 비게 된다. 굽히고 펴는 것은 妙요, 차고 비는 것은 道이다. 펴면 가득 차고 굽히면 텅 비며, 가득 차면 나아가고 비면 돌아오는데, 나아가면 神이라고 하고 돌아오면 鬼다. 그 참된 理는 하나이되, 그것이 나뉘면 각기 만 가지로 다르게 된다. 순환하고 왕복하며 꽃이 피고 시들어 떨어지는 것은 조화의 자취이니, 음과 양 두 기가 소멸하고 성장하는 良能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29]

이 인용문은 김시습이 쓴 「신귀설」의 전반부이다. 김시습은 이와 같이 氣가 변하는 이치로써 귀신론을 펼쳤다. 여기서 "하늘과 땅 사이는 오직 하나인 氣가 풀무질할 뿐이다"라는 뜻은 천지만물은 본체가 하나라는 것으로서, 결국 사람이 죽어 氣가 흩어진 뒤에는 저승에 가거나 응보를 받을 때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시습에게서 神이란 바로 자연이 순환하는 형상으로 음양의 이치는 어디에서든지 통용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박생의 일원론과 염부주와 박생의 문답에서도 김시습의 귀신론은 氣一元論의 이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시습의 「雜說」을 통해서 보면 기일원론을 벗어나고 있다. 김시습은 理氣二元論의 이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음이 보인다.

> 하늘이 백성을 냄에 각기 그 성을 주었으니 性은 곧 理이다. 理라고 말하지 않고 性이라 말한 것은, 理란 人과 物의 公共된 理이고 性이란 나에게 있는 理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理는 善하지 않음이 없으니 父子有親이나 朋友有信의 이치 같은 것은 사람의 性이요, 소가 밭을 갈고 말이 달리는 것, 닭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개가 집을 지키는 것, 풀

28) 조동일, 앞의 책, 173면 참조.

29) "天地之間, 唯一氣橐籥耳. 此理有屈有伸有盈有虛, 屈伸者妙, 盈虛者道也. 伸則盈而屈則虛 盈則出而虛則歸, 出則曰神, 而歸則曰鬼, 其實理則一, 而其分則殊, 其循環往復榮華枯落造化之迹, 莫非二氣消長之良能也."(김시습, 「神鬼說」, 『梅月堂集』 권20; 심경호,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2000, 289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 나무 그리고 곤충들이 제각기 形質을 갖추고 있으되 좋고 나쁨이 똑같지 않는 것은 物의 理致이다. 그러나 그 근본을 말한다면 하나이다.[30]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人과 物은 각기 理를 가지고 있으며, 理는 본래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理란 하늘에서 나온 것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理를 잘 보존하고 기름으로써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31]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김시습은 生死와 관련된 우주 질서와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氣의 屈伸盈虛에 의한 근본 원리로 파악하였다. 김시습의 귀신론은 기일원론을 정념으로 하였으며 理의 존재를 인정하는 理氣二元論 사상도 일부 수용하였던 것이다. 김시습의 이와 같은 귀신론은 「남염부주지」의 일리론과 염부주에서 박생과 염왕의 문답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성리학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2) 현실 불교 폐단 비판

염부주에서 박생과 염왕의 대화는 주공·공자의 유교의 道와 석가의 불교의 道에 대한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박생은 현실세계에서 불교·巫覡·귀신에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入夢하여 염왕을 만나자 마자 묻는다.

> 周公과 公子는 중국 문명 세계의 聖人이고, 釋迦는 西域의 간흉 가운데 성인이오. 문명 사회가 비록 밝다 하나 사람의 본성에 순수하고 잡박한 차이가 있으므로 주공과 공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오. 또한 간흉이 비록 唵昧하다 하나 사람의 기질에 예리하고 둔한 차이가 있으므로 올바르게 되도록 석가가 깨우친 것이오.
>
>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올바름으로 사악함을 물리친 것이고, 석가의 법은 사악함을 동원하여 사악함을 물리친 것이라오. 올바름으로 사악함을 물리치기에 그 말이 정직하고,

30) "天之生, 各與以性, 性卽理也. 不謂之理, 而謂之性者, 理是泛言人物公共之理, 性是在我之理. 未嘗不善, 如父子有親之理, 以至朋友有信之理, 便是人之性, 如牛耕馬馳, 鷄司晨, 犬護主, 草木昆蟲, 各有形質, 好惡不同, 便是物之理. 然而其源則一也."(김시습, 「雜說」, 『梅月堂集』 권23; 윤승준, 앞의 논문, 258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31) 윤승준, 앞의 논문, 258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악함으로 사악함을 물리치기에 그 말이 허황되지요. 주공과 공자의 가르침은 정직하므로 군자가 따르기 쉽고, 석가의 말은 허황되므로 소인이 믿기 쉽다 하겠소. 하지만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 모두 군자와 소인으로 하여금 마침내 올바른 도리로 돌아가게 하니,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속여 이단의 도리로 사람을 그르치게 한 적이 없다오.[32]

주공과 공자, 그리고 구담은 각각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박생의 질문에 대해 염왕이 대답한다. 염왕은 주공과 공자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바른 이치에 돌아가게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유교의 경우에는 '以正去邪'하기 때문에 바르고 곧은 말로써 사람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君子들이 따르기 쉬웠으며, 불교는 '設邪去邪'하여 荒誕한 말로써 사람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소인들이 믿기 쉬웠다고 하였다. 즉 유교의 도와 불교의 도를 모두 긍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김시습은 '心儒跡佛' 했다고 하는 후대의 평가를 받고 있듯이, 유교와 불교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모두 자신의 사상 속에 수용하였다. 불교가 비록 그의 정신적 방황의 산물이었다 할지라도, 불교에 대한 입문은 그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김시습은 유불 사상을 모두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인용문은 김시습이 불교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부처의 뜻이란 어떤 것인가? 크게 깨닫고 능히 仁하며, 세상에 응하여 중생을 교화함이다. 鹿野苑으로부터 恒河에 이르도록 이치를 말하고 일을 말하며, 깊은 것을 말하고 묘한 것을 말한 것은 이 마음을 연구하고 이 이치를 밝히려 한 것뿐이니, 이 마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천성을 다하는 것이요, 이 이치를 밝힌다는 것은 본디부터 있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33]

---

32) "周·孔, 中華文物中之聖也, 瞿曇, 西域姦兇中之聖也, 文物雖明, 人性駁粹, 周·孔率之, 姦兇雖昧, 氣利鈍, 瞿曇警之, 周·孔之敎, 以正去邪, 瞿曇之法, 設邪去邪, 以正去邪故, 其言正直, 以邪去邪故, 其言荒誕, 正直故君子易從, 荒誕故小人易信, 其極致則皆使君子小人終歸於正理, 未嘗惑世誣民, 以異道悞之也."(「남염부주지」, 136면; 같은 책, 947면)

33) "然則, 覺皇之志則如何, 大覺能仁, 應世化生, 自鹿苑至金河, 說理說妙, 但究此心, 明此理而已, 究此心者, 盡其天性, 明此理者, 全其固有也."(김시습, 「雜著」, 『梅月堂集』 권26; 윤승준, 앞의 논문, 274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시습은 불교는 중생을 교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비록 荒誕한 말을 통해 대중들을 믿게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른 도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抑佛崇儒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의 이면에 실재하고 있는 대중들의 종교생활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를 토대로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념과 현실의 발전적인 지양을 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4]

다음은 천당 지옥에 대한 불교의 설과 冥府十王의 存在 與否, 그리고 世俗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단에 대한 이야기이다. 박생의 질문에 대해 염왕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한 번 음이 되었다가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道'라 하고, 한 번 열렸다가 한 번 닫히는 것을 '變'이라 한다. 만물을 낳고 또 낳는 것을 '易'이라 하고, 망령됨이 없는 것을 '誠'이라 한다. 그렇다면 어찌 乾坤 밖에 다시 건곤이 있으며, 천지 밖에 또 천지가 있을 수 있겠소[3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김시습은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주 자연의 질서와 만물이 생성하여 변화하는 것은 氣의 屈伸盈虛하는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기의 굴신영허하는 작용은 다름이 아닌 理라고 한 김시습의 귀신관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곧 염왕의 말은 김시습 자신의 논리인 것이다. 김시습이 불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그가 불교를 반드시 수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염부주지」에서 볼 수 있는 그의 태도는 불교의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지만, 허망한 이야기나 잘못된 世俗으로 발생되는 弊端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佛齋에 대해서는 염왕이 잘 알지 못한다고 박생에게 俗世에서 행해지고 있는 폐단의 實相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

34) 윤승준, 앞의 논문, 275 참조.

35) "一陰一陽之謂道, 一壁一闔之謂變, 生生之謂易, 無妄之謂誠. 夫如是則豈有乾坤之外復有乾坤, 天地之外更有天地乎?"(「남염부주지」, 13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간 세계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상례와 장례를 절차대로 올리지 않고, 오로지 절에 가서 齋를 베풀려고만 합니다. (…) 또 이른바 '十王'이란 이들을 불러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 지내고 지전을 태워 죽은 이의 속죄를 빕니다. '시왕'이란 이들이 예의염치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라서 욕심을 채우고자 함부로 돈과 음식을 받겠습니까? 마땅히 자기들의 법도에 맞추어 법에 따라 중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36]

이에 대하여 박생은 속세에서는 49祭 때만 되면 禮儀는 무시한 체, 如何를 막론하고 번다하게 十王에게 祭를 올리고 있다고 世俗을 개탄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되물었다.

허어! 그 지경에 이르렀군요! 사람이 태어나매 하늘은 본성을 부여하고, 땅은 생명을 주어 기르며, 임금은 법으로 다스리고, 스승은 도리로 가르치며, 부모는 은혜로 기르지요. 이로 말미암아 五倫에 질서가 있고, 三綱에 문란함이 없게 되었소. 삼강오륜을 따르면 상서롭고 거스르면 재앙이 생겨나니, 상서와 재앙은 사람이 삼강오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오. (…) 맑고 깨끗한 신이 속세 인간의 공양을 받을 리 있겠소? 존엄한 왕이 죄인의 뇌물을 받을 리 있겠소?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소? 이런 일 또한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 선비라면 마땅히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오.[37]

염왕은 사람이 죽게 되면 精氣가 흩어져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곧 정기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혹 怨恨을 품은 魂이나 非命에 橫死한 夭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돌아가는 법이라면서 世間에서 행해지는 佛齋를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

36) "世俗當父母死亡七七之日, 若尊若卑, 不顧喪葬之禮, 專以追薦爲務. (…) 而又招所謂十王者, 備饌以祭之, 燒錢以贖之. 爲十王者, 當不顧禮義, 縱貪而濫受之乎? 當考其法度, 循憲而重罰之乎? 此不肖所以憤排, 而不敢忍言也. 請爲不肖辨之."(「남염부주지」, 139면)

37) "噫哉! 至於此極也. 且人之生也, 天命之以性, 地養之以生, 君治之以法, 師敎之以道, 親育之以恩. 由是, 五典有序, 三綱不紊, 順之則詳, 逆之則殃. (…) 那有以淸淨之神而享世人供養; 以王者之尊而受罪人賄賂; 以幽冥之鬼而縱世間刑罰乎? 此亦窮理之士所當商略也."(「남염부주지」, 13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였다. 더욱이 맑고 깨끗한 신이 속세 인간의 공양을 받을 리 있으며, 존엄한 왕이 죄인의 뇌물을 받을 수 있으며, 저승의 귀신이 인간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받겠냐면서 佛齋나 굿의 허망함을 지적하였다. 본래의 뜻과는 달리 불교가 왜곡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폐단을 비판하였다.

> 정령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윤회가 있을 듯도 하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령도 흩어져 사라지고 마오.[38]

輪廻의 문제는 염왕이 간명하게 대답함으로써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문제들을 토대로 한다면, 윤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生死란 하늘로부터 精氣를 타고나서 죽음에 이르면 그 정기는 다시 本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김시습이 가지고 있던 鬼神論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39]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김시습은 불교의 교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에 대해 갈등하고 비판하며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남염부주지」에서 볼 수 있는 그의 태도는 불교의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지만, 본래의 뜻과는 달리 불교가 왜곡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 김시습은 이와 같이 정립되어 있는 자신의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을 「남염부주지」에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2. 민본주의 治世觀

1) 사회 모순에 대한 憤鬱

먼저 첫 단락에서 보면 박생은 반듯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 "精靈未散則似有輪回, 然久則散而消耗矣."(「남염부주지」, 140면)
39) 윤승준, 앞의 논문, 277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생은 자신의 理想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힌다.

> 성화 연간 초기에 박생이란 사람이 경주에 살았다. 박생은 유학 공부에 힘쓰던 이로, 성균관에 다니고 있었으나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져 늘 불만스러워하며 유감을 품고 지냈다. 그러나 의기가 드높고 남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지라, 사람들은 박생을 오만하고 기개가 높은 인물이라고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박생이 교만한 인물은 아니어서 직접 대면해 보면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칭찬했다.[40]

주인공 박생은 유학에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매번 과거에 낙방하였다. 박생이 힘써 공부해도 등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관리 등용의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생이 자신의 이념에 갈등하고 정념화 되지 않은 채, 과거는 쉽지 않은 관문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중세사회는 관리등용에 있어서 親疎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팽배한 시기였으므로 더욱 더 등용은 어려웠을 것이다.[41] 세간의 보통 사람들이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권세가의 세력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만한 사람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이처럼 전반부에서는 박생의 결핍적 상황과 사회적 모순에 대한 몇 가지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학문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등제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적 결핍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염부주에서 염왕의 말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고상하여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남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달인이라고 들었소. 그럼에도 세상에 뜻을 한번 펼쳐 보이지 못했으니, 그야말로 천하의 보배로운 옥이 황야에 버려지고 연못 깊이 가라앉아 있는 것과 같은 신세구려. 훌륭한 장인을 만나기 전에야 누가 천하의 보물을 알아볼 수 있겠소? 참으로 안타깝소![42]

---

40) “成化初, 慶州有朴生者, 以儒業自勉, 常補太學館, 不得登一試, 常怏怏有憾, 而意氣高邁, 見勢不屈, 人以爲驕俠, 然對人接話, 淳愨慤厚, 一鄕稱之”(「남염부주지」, 132면)

41) 문범두, 앞의 책. 34면 참조.

42) “寡人聞子正直抗志, 在世不屈, 眞達人也, 而不得一奮其志於當世, 使荊璞棄於塵野, 明月沈于重淵, 不遇良匠, 誰知至寶? 豈不惜哉!”(「남염부주지」, 14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생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학문적으로 통달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荊山의 玉이 벌판에 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빠진 것과 같은 처지이며, 진흙 속에 묻힌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뛰어난 匠人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했다. 이는 결국 입몽 전, 박생의 결핍적 상황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은 論說에서 뛰어난 선비가 不遇를 겪게 되는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보고 있다. 하나는 時를 만나지 못해 뜻을 펼 기회가 없었던 경우이고, 하나는 그 재능을 알아주고 써 준 賢者가 보위에 없는 경우라고 하였다.[43]

가) 아! 왕이 인재를 얻기는 매우 어렵지마는, 人才도 盛世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 인재 역시 그러하다. 성세에 나서 揖讓하는 조정에 들게 된 연후에야 자기의 품은 뜻을 다하게 되니 사람들이 그를 뛰어난 선비라 말하게 되고, 또 평소의 자기 뜻도 펼 수 있다.[44]

나) 伊尹은 들 가운데서 한낱 밭갈이하던 노인이었다. 밭도랑 사이에 처해 있을 때에도 堯舜의 도를 즐거워하며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더니, 帝乙이 세 번씩이나 부르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서 나아가 保衡이 되었다.[45]

재능을 지닌 선비가 그 뜻을 펴기 위해서는 治世期에 태어나서 禮와 德을 갖춘 조정의 반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비가 때를 만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운수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일종의 운명론적인 주장이 엿보인다.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성군이 보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성군이 보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才士가 때를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비가 때를 만난다는 것은 성군이 보위에 있어 德治를 구가하는 시대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일반론적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으나 결국 불우한 현재의 김시습 자신에 대한 존재적 이해의 방식이다. 한 때 世宗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바 있는 그

43) 문범두, 앞의 책, 37면 참조.

44) "噫, 王者得人才甚難, 而人才之遇盛世不易, (…) 人才亦然, 生盛治之世, 居揖讓之朝, 然後可以自盡其謀猷, 人謂之俊彦, 而得伸其素負之志矣."(김시습,「人才說」,『梅月堂集』 권20; 문범두, 앞의 책, 38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45) "伊尹, 莘野一耕叟也, 方其處畎畝之中, 樂堯舜之道, 以爲自得焉, 及其帝乙之三聘也, 見可而進, 而爲保衡."(김시습,「古今君子隱現論」,『梅月堂集』 권18; 문범두, 앞의 책, 39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世祖代를 겪으면서 덕 있는 군왕의 출현을 기대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미천한 무반가의 후예인 그에게 있어서는, 신분상의 한계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문사의 내적 자질을 통찰하는 성군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컸으리라 생각된다.[46]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김시습은 「남염부주지」에서 결핍적 상황을 초래했던 박생의 불우는 한 개인의 영역이지만, 이는 문사의 입신여부를 결정짓는 관리등용의 제도와 현성한 군왕의 在·不在라는 시대적 환경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 모두는 김시습 자신의 현재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憤鬱을 나타낸 것이다.

2) 군주론

입몽 후에 박생과 염왕의 마지막 문답으로 군주가 다스리는 道를 논한다. 박생의 말에서 임금된 자로서 갖추어야 할 治國의 道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 나라를 가진 자는 폭력으로 인민을 위협해서는 안 되오. 인민이 비록 두려워하여 명령에 따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반역할 마음을 품어 시간이 흐르면 결국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오. 덕 있는 자는 힘으로 군주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소. 하늘이 비록 자상한 말로 사람을 깨우치지는 않지만 시종일관 일을 통해 보여주거늘, 이를 보면 하늘의 명이 엄하다는 걸 알 수 있소.
>
> 무릇 나라는 인민의 것이요, 명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오. 천명이 이미 임금에게서 떠나고 민심이 이미 임금에게서 떠나간다면, 비록 몸을 보전하고자 한들 어찌 보존할 수 있겠소?[47]

---

46) 문범두, 앞의 책, 38~41면 참조.

47) "有國者, 不可以暴劫民, 民雖若瞿瞿以從, 內懷悖逆, 積日累 月, 則堅冰 之禍起矣. 有德者, 不可以力進位. 天雖不諄諄以語, 示以行事, 自始至終, 而上帝之命嚴矣. 蓋國者, 民之國 命者, 天之命也. 天命已去, 民心已離, 則雖欲保身, 將何爲哉?"(「남염부주지」, 14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인용문은 염왕의 발언을 통해 개진된 君主論이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염왕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덕이 없는 사람은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천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된다는 것은 德을 베풀고 禮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유교적 정치 논리를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민본주의 政治觀이 잘 드러나고 있다. 힘과 威壓에 의한 統治를 부정하고 德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德治主義를 강조하는 것으로 김시습의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의미한다.[48]

이와 같은 김시습의 정치이념은 愛民義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 군주가 왕위에 올라서 부리는 대상은 실로 民庶이다. 민심이 귀의하여 다르면 만세토록 군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민심이 떠나서 흩어지면 하루 저녁도 안돼서 필부가 되는 것이다. 군주와 匹夫의 사이는 비단 毫釐의 차이로 서로 격하여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미세한 차이로 격하여 있을 뿐이니,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49]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민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과 상통점이 있다. 민심이 떠나면 임금일지라도 한낱 필부와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임금이 민심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시습이 현실 정치에 불만을 갖게 된 것은 주지하듯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기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자신의 일생의 길을 돌이킬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50] 김시습은 太祖와 太宗代에 바탕을 닦은 왕조가 世宗代에 이르러서, 왕업이 흥기하고 교화가 두루 펴짐으로써 三皇五帝의 태평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세조는 유교적 명분을 거슬렸을 뿐만 아니라, 세종대의 성업을 일거에 무너뜨린 패역한 군주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유교

---

48) 문범두, 앞의 책, 47면 참조.

49) “君之莅御以使者, 實惟民庶, 民心歸附, 則可以萬世而爲君主, 民心離散, 則不待一夕而爲匹夫, 君主匹夫之間, 不帝豪釐之相隔, 可不愼哉.”(김시습, 「愛民義」, 『梅月堂集』 권20설; 심경호, 앞의 책, 296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50) 김시습이 21세 되던 해 三角山 中興寺에서 수학하던 중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에 상심하여 곧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난 것은 그만큼 상심이 컸다는 것을 말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 정치대의에 철저했던 그에게 있어서는 세조의 왕위찬탈 행위는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51]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德이 없는 자가 폭압으로 보위에 올랐다면 天命을 거스린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임금이란 德을 베풀고 禮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유교적 정치논리를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민본주의 政治觀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덕이 부족한 사람이 왕위에 있게 되면 민심은 떠나게 된다는 것으로 세조를 우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51) 문범두, 앞의 책, 46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安憑夢遊錄」과 「元生夢遊錄」의 이념

이 장에서는 16세기 서사를 대표하는 신광한의 『기재기이』 중에 「안빙몽유록」과 임제의 「원생몽유록」의 서사에 담긴 이념을 살피고자 한다. 전기소설의 양식적 범주에 속하는 몽유구조는 단순한 꿈의 기록을 넘어서, 이야기 구조 내의 환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대립적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 속에서 작가가 갖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어떤 양상으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 이념적 갈등: 「안빙몽유록」

세조의 왕위 찬탈로 야기된 사대부 사회의 분열은 거듭된 사화로 더욱 피폐해 갔다. 신광한은 조광조와 더불어 己卯士禍의 被禍人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빙몽유록」은 주제의식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제된 이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염부주지」와 「원생몽유록」의 사이에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1) 정치 현실의 체념

安憑이 입몽 전과 각몽 후의 현실에서의 면모와 세계인식을 살펴보자.

> 글 잘하는 선비로 성은 安, 이름은 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누차 進士試에 응했으나 합격하지 못했고, 남산 별장으로 나아가 한가로이 살았다. 사는 곳의 후원에는 이름난 꽃과 기이한 풀을 많이 심었는데, 날마다 그 사이에서 시를 읊조렸다. 일찍이 음력 삼월 말에 일기가 맑고 온화하여 선비는 화초를 읊어 감상하며 흐뭇하게 오가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52]

52) "有書生, 姓安名憑者, 累擧進士不第, 就南山別業, 居閑, 所居之後圃, 多植名花異草, 日哦詩其間, 嘗於暮春末, 天氣淸和, 生乃吟翫花卉, 怡怡往來者不已."(「안빙몽유록」, 소재영, 『기재기이연구』, 영인부록 3면) 이하 「안빙몽유록」의 번역은 소재영, 『기재기이연구』의 번역을 재인용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인용문은 입몽 전 안빙의 모습이다. 「남염부주지」의 몽유자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지식인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안빙이 進仕試에 수차례 낙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염부주지」의 박생처럼 强憤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형상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다. 급제하지 못한 소외된 현실에서 정원이나 가꾸며, 심신의 수양이나 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으로 보인다. 신해진은 "신광한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은거 생활을 해야 했던 원형리에서 방 한 칸에 책을 쌓아두고 두문불출하며 책 읽는 것으로 소일했던 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53] 즉 신광한이 退하여 정치 진출을 체념한 모습으로 보인다.

모란 한 떨기가 비바람에 흩어진 바 되어 시들은 붉은 꽃잎이 땅에 떨어져 있고, 그 뒤에는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가 나란히 있고, 가지 사이에는 파랑새가 짹짹거렸다. 대나무와 매화나무가 각각 한 곳을 차지했는데, 매화나무는 새로 옮겨져 난간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정원 가운데에는 연못이 있었고, 푸른 연의 잎은 새로 물위에 떠 있으며, 울타리 아래에는 국화가 새싹을 갓 틔우고 있었다. 붉은 작약은 활짝 피어 섬돌 위에 버금갔고, 석류 몇 그루가 채색 화분에 심어져 있고, 담장 안에는 수양이 땅에 드리워 있고, 담장 밖에는 늙은 소나무가 구부러져 있었다. 그 나머지 여러 꽃의 분홍, 푸름, 붉음, 자주 등의 색과 벌이 쏘고 나비가 춤춤은 마치 악기를 보는 것과 같았다. 선비는 이에 이러한 물건들이 괴변을 일으켰음을 알고, 또 문밖의 미인을 생각해 보니, 선비가 일찍이 항간에서 소위 黜堂花라고 하는 것을 얻었는데, 꽃을 가꾸는 아이에게 희롱 삼아 말하였다.

"이 꽃은 양귀비에게 죄를 얻었으므로, 출당이라 이름 했으니, 바깥 섬돌에 심음이 옳겠다."

아이가 과연 섬돌 아래에 심었던 것이다. 선비는 이로부터 휘장을 내리고서 글만 읽고, 다시는 정원을 엿보지 않았다.[54]

---

53) 신해진, 앞의 책, 84면.

54) "牧丹一叢, 爲風雨所擺, 委紅墮地, 其後, 桃李並立, 枝間靑鳥噪嘈, 竹與梅各專一塢, 而梅則新移, 護以欄, 庭中有蓮池, 靑錢始浮, 籬下有菊抽茁, 赤芍藥盛開, 亞于階上, 安榴數株, 植於彩盆, 墻內垂楊拂地, 墻外老松偃盖矣, 其餘雜花, 絳綠紅紫, 蜂彈蝶舞, 若見樂妓, 生乃知此物作怪, 又思門外美人, 則生嘗得俗所謂黜堂花者, 戲謂護花童曰: 此花得罪楊妃, 故名黜堂 植諸外階可也. 僮果植之階下矣, 生自此下惟讀書, 不復窺園云."(「안빙몽유록」, 2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각몽 후 서사의 마지막 대목이다. 여기에서 문 밖의 미인, 즉 출당화는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조정을 물러나야 했던 작자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꿈에서 깨어난 안빙은 꿈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신의 후원에 있는 사물들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깨닫는다. 뜰에 있는 식물들이 괴변을 일으켰음을 알았는데도 실제로 하는 행동은 매우 소극적이다. 안빙은 자신이 처지를 고뇌하거나 난관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 이후로는 휘장을 내리고 글공부만 할 뿐, 다시는 정원을 엿보지 않는다. 이는 풍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선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글 읽는 선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본분을 지키라는 교훈을 주는 듯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안빙의 입몽 전과 각몽 후의 모습은 신광한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심신 수양하며 꿋꿋하게 선비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으로 아직은 자신이 정계에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난세기가 끝나면 치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정치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소통의 不在

몽유세계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 우리 임금님은 陶唐氏로, 堯임금의 아들 丹朱의 후예입니다. 그 선조 중 많은 사람이 虞·夏시대에 여러 목민관이 되었는데 목민관에 공이 있으므로 해서 드디어 왕의 호칭을 갖게 되어 여러 대를 이어 왔으나, 후사가 번창하지 못하여 여러 신하들이 공화정치를 하여 종실의 여자 중 학문과 덕이 있는 자를 택하여 즉위시키고, 木德·火德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무릇 威儀制度에는 푸른빛과 붉은 빛을 숭상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이 예를 따르고 있습니다.[55]

55) "寡君, 氏陶唐, 堯之胤子丹朱苗裔也. 其先多爲虞夏羣牧, 因牧有功, 遂有王號, 綿歷世代, 繼嗣不繁, 羣臣共和, 擇宗姓女有文德者, 立之, 雜用木火德. 凡威儀制度, 尙靑赤, 至今, 襲是禮焉."(「안빙몽유록」, 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인용문은 朝元殿에 인도되면서 안빙이 임금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왕은 陶唐 요임금의 아들 단주의 후예로 후손이 번창하지 못해 신하들이 함께 의논하여서, 종실의 여자 가운데 學德있는 사람을 간택하여 여왕으로 삼았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여왕의 추대 과정을 통해 중정반정의 모순을 우의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몽유세계에 등장하는 인물군은 여왕을 비롯하여 여성형으로 의인화한 부류와 남성형으로 의인화한 부류의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이 인물군은 매우 대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 영화롭던 지난날 사양하며 같이 수레타니
비바람이 아침을 마치도록 백량대를 막았도다.
천년토록 마음을 알아주는 이는 오직 이백뿐이니
조비련의 새 단장 의지함을 가련히 생각하노라.[56]

나) 조래산 아래 늙은 수염의 사나이
바람과 서리에도 옛 모습을 바꾸지 않는구나.
가장 한하는 것은 주왕이 동쪽으로 사냥간 뒤
부질없이 헛된 명성을 얻어 더럽게 진해 봉해진 것이라. [57]

가)는 여성형으로 의인화된 인물 중에 반희가 나)는 남성형으로 의인화된 인물 중에 조래선생이 읊는 시이다. 전자는 시연에 직접 참여하는 이부인·반희·옥비 등으로 한결 같이 임으로 부터 단절의 애환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며 재결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반면 후자는 조래선생·수양처사·동리은일로 어떠한 화합도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고함과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형색으로 강직하고 지조 있는 야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두 인물군은 훈구와 사림

56) "榮華昔日辭同輦, 風雨終朝鎖柏梁. 千載知心唯李白, 解憐飛燕倚新粧."(「안빙몽유록」, 24면)
57) "徂徠山下老髯公, 不爲風霜改舊容. 最恨周王東狩後, 謾留虛譽汚秦封."(「안빙몽유록」, 2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정치 현실에서 권력을 지고 있는 훈구 대신들의 모습이고. 후자는 훈구 대신들과의 갈등으로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소외된 사림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여왕에 대한 감정은 상반되지만 서로간의 갈등대립은 없어 보인다. 이는 다음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 두 사람이 나중에 이르러, 앉은 차례를 두고 곤란해 하니, 조래가 말했다.
>
> "옥비는 수양의 아래에 차례 할 만하오."
>
> 옥비는 얼굴빛을 바꾸며 말하였다.
>
> "'禮記에 남녀는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했는데, 하물며 손을 마주 닿으며 앉겠습니까?"
>
> 왕이 말했다.
>
> "그렇다. 옥비는 혈족으로는 형이요, 또한 누추한 나라의 빈객이니 비록 권좌에 앉았더라도 내가 낮춤이 옳다. 주씨는 마음대로 성곽과 못을 만들어 주인이 되었으니, 옥비의 다음 차례가 될 만하다."
>
> 두 사람이 겸양하여 정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자리에 이끌려 조금 뒤 쪽에 앉았다.[58]

연회가 시작되기 전 자리다툼의 입씨름이 있었다. 여성형으로 의인화된 옥비의 뜻대로 자리가 정해지는데도, 조래선생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작자는 이런 상황의 설정으로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이는 '소통의 不在'를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안빙을 제외한 나머지 양측의 인물들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될 만한 대립도 갈등이 해소할 만한 타협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낳게 된 것은 상호간의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작자는 연희라는 장치로 화합을 설정함으로써 '소통의 不在'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59] 이는 여왕과 남성형으로 의인화된 인물군의 대립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

58) "二人後至, 難於坐次, 徂徠曰: '玉妃可次首陽之下', 妃改容曰: '禮男女不同席, 況交臂而坐乎' 王曰: '然, 玉妃於屬兄, 而亦陋邦之賓也, 雖權坐吾下, 可也. 周氏擅城池爲主, 可次玉妃'二人謙讓不獲, 則遂引席差後而坐."(「안빙몽유록」, 11면)

59) 엄기영, 「서사구성 방식과 의미」, 앞의 책, 145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首陽의 고고함과 東籬의 자유분방함은 이른 바 뼈가 사그라지도록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옛날 노나라 공자가 말하기를 '주나라는 하, 은 두 시대를 본받았으니, 빛나디 빛나도다. 문화여! 나는 주나라를 본받으리라'고 했고, 당나라 한유도 또한 말하기를, '애석하도다! 내가 그 때에 미치지 못함이여! 그 사이에 나아가고 물러나며 읍하고 양보하지 못했으니 아! 성대하도다!'라고 하였으니 설사 두 군자를 이때에 나게 했더라도 역시 능히 고고함, 자유분방함에서 그쳤을 뿐일 것이다.[60]

나) 요·순이 위에 있고, 아래에는 소부, 허유가 있었으니, 주나라 공덕이 비록 성대하나 멀리 당우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비록 쇠미했으나, 허유와 소부의 뒤에 있고자 하지는 않습니다.[61]

가)는 여왕이 절개를 고수하겠다는 조래 선생을 비롯한 남성형 인물군을 조롱하는 글이다. 여왕은 進退가 時에 맞았기 때문이지 다른 시대였다면 고고하거나 자유분방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다. 나)는 이에 대한 처사의 답으로 자신들이 비록 노쇠하더라도 어느 누구보다도 지조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자는 수양처사로 하여금 왕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임금이 된 자가 예로 다스리는 것은 절도에 맞아야 한다는 七情을 강조하고 있다.[62] 결국 작자는 현실 정치의 부조리한 측면을 몽유세계에서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여왕과 남성형 인물군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역시 안빙은 이들의 대립을 중재한다거나 개입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안빙이 자신의 어떠한 신념도 표출하지 않고 있음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 있다.

우연히 호랑나비를 만나 그윽한 대화 이루고

문득 바라보니 산길 또한 봄이구나.

---

60) "首陽之枯槁, 東籬之踈放, 所謂骨消未變者也. 昔魯孔子曰: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吾從周' 唐韓愈亦曰: '惜乎, 吾不及其時, 進退揖讓乎其間' 嗚呼盛哉, 假使兩君生際斯時, 亦能終於枯槁踈放而已耶"(「안빙몽유록」, 21면)

61) "堯舜在上, 下有巢許, 周德雖盛, 遠愧唐虞. 吾兩人雖衰, 不欲居由父之後."(「안빙몽유록」, 22면)

62) 신해진, 앞의 책, 98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청조는 홀연히 금모의 소식을 전하고

늙은이는 지금 자황의 대궐에서 절하도다.

빈장들 많은 자리엔 꽃도 일제히 터지는데

풍월은 사람을 머물 게 술은 몇 순배였나?

스스로 다행함은 묵은 인연 때문에 옥적에 오름이니

되돌아와 다시 금성 사람을 찾으리.[63]

이 시는 안빙이 읊은 시이다. 시연에 참여한 안빙은 자신의 감회만 읊었을 뿐, 화원왕국의 대립적 양상인 여성형 인물군에서 느낄 수 있는 단절의 애한이나, 남성형 인물군에서 느낄 수 있는 고고함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있다. 당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훈구와 사림의 사이에서 숙명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신광한의 존재가 투영되고 있다. 훈구와 사림으로부터 일정하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신광한의 중간자적 성격이 드러나 보인다.

위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화원 왕국에서 인물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심하게 대립하지도 않았다. 또한 안빙도 문제를 중재하려거나 해결하려는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방관하고 지켜볼 뿐이었다. 이처럼 화원왕국의 대립적 상황에서 몽유자가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확실한 선택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몽유자의 이러한 방관적 모습은 사림파적 정치의식과 동시에 훈구적 가문의식을 지닌 인물로서 살아야 했던 신광한의 내면적 모순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64]

한 미인이 있어 문밖에 섰다가 선비에게 읍하며 말했다.

"오늘의 놀이는 즐거웠습니까?"

---

63) "偶隨蝴蝶成幽討, 驚見山蹊分外春, 靑鳥忽傳金母信, 白頭今拜紫皇宸, 嬪嬙滿座花齊綻, 風月留人酒幾巡, 自幸宿緣聯玉籍, 歸來還訪錦城人."(「안빙몽유록」, 18면)

64) 신해진, 앞의 책, 101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비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건대 홀로 여기에 서 있소?"

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옛 말에 전하기를 저의 조상은 개원말기에 양귀비에게 죄를 얻었다 하는데, 일이 문서에 기록되지 않아 말이 매우 황당무계하나, 오늘까지 천여년에 자손에게 누를 끼쳐, 또한 당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널리 사랑하는 앞에 의당 이런 일이 있습니다."[65]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여왕의 통치는 허울뿐이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인의 하소연을 통해 어떤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대와 차별받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몽유세계를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화원왕국은 권도가 횡행하고 군주의 절도에 맞지 않는 七情으로 기강과 체통이 바로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만연되고 언로가 폐쇄되어 뜻있는 선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화원의 갈등은 신광한이 임금을 모시고 벼슬살이를 하던 당시의 인간적 갈등 관계, 정치 세계의 이변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신광한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여주 원형리에 은거하게 되자 과거 관직에 있을 때 현실의 부조리한 면, 즉 훈구와 사림간의 부조화로 모순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임금의 부도덕성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화원왕국을 일정하게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신념도 표명하지 않고 다만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을 낳게 한 것은 '소통의 不在'라고 할 수 있다.

2. 天道 실현의 염원: 「원생몽유록」

이 시기에는 권력 다툼의 당쟁에서 비롯하여, 마침내는 기득권 세력인 士林의 내부 분열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 기득권층에 대한 상대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되

65) "有一美人立于門外, 揖生曰: '今日之遊, 樂乎.' 生曰: '子何人獨立於斯乎.' 美人泫然曰: '諺傳, 妾之先, 於開元末, 得罪于楊妃, 事不載籍, 語甚無稽, 而至今千有餘年, 累延後裔, 亦未升堂, 泛愛之前, 宜有玆事.'"(「안빙몽유록」, 2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 이념적인 입장까지 달리하고자 하는 문인부류가 출연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나름의 治世論을 세우고 새로운 정신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임제는 당대의 문사들 중에서 方外人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호탕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뛰어난 재성으로 문무를 겸비했으나 현실적 한계에 부딪친다. 거기에서 고뇌하고 좌절했던 그가 살아 온 삶의 자취들의 현실문제가 서사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이상과 현실의 괴리

몽유자인 元子虛[66]의 인물됨과 현실에서의 세계인식을 살펴보자.

> 세상에 元子虛라는 이가 있는데, 강개한 선비다. 기개가 높고 도량이 매우 넓어 자잘한 일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원자허에게는 羅隱과 같은 한이 있었고, 原憲처럼 견디기 어려운 가난이 있었다. 그리하여 아침 일찍 나가서 농사를 짓고, 밤늦게 돌아와 옛사람의 책을 읽었다. 벽을 뚫어 이웃집의 불빛으로 책을 읽고 반딧불이를 주머니에 넣어 그 불빛으로 책을 읽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계속했다.[67]

이 인용문은 몽유자의 인물됨과 처지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허는 작품의 주인공인 몽유자이다. 그는 기개가 높고 도량이 넓어 사소한 일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잘 화합되지 못했다. 羅隱과 같은 한을 품었으며 原憲과 같은 가난을 견디기 어려워했던 인물이라고 하였다. 羅隱은 중국 당나라 말기의 어진 신하로 朱全忠이 당나라 임금을 죽이고 새로 양나라를 세우자 오월왕에게 권하여 양나라를 치게 했던 충신이다. 그리고 原憲은 중국 고대 노나라의 청빈한 관원으로 공자의 제자이다. 따라서 주인공 원자허는 낮에는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밤에는 돌아와서 옛사

66) 元子虛는 작자인 林悌 자신을 假託한 허구적인 인물이다. 子虛는 한나라 때의 문인 司馬相如의 「自許賦」에서 유래한 말이다. 生六臣의 한사람인 元昊라고 보는 설도 있다. 원호의 字가 子虛이기 때문이다.

67) "世有元子虛者, 慷慨之士也. 氣宇磊落, 不容於世, 屢抱羅隱之恨, 難堪原憲之貧, 朝出而耕, 夜歸讀古人書, 穿壁襄螢, 無所不爲."(「원생몽유록」, 박희병 표점·교석,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167면) 이하 「원생몽유록」의 번역은 박희병·정길수, 『이상한 나라의 꿈』의 번역을 재인용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람의 글을 읽는 청빈한 생활을 하는 유학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는 일찍이 역사책을 읽다가 역대 왕조가 위태롭고 망하게 되어 국운이 옮겨지고 세력이 쇠퇴하게 되면, 언제나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슬퍼하였다. 이는 곧 임제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글이 잘 뒷받침해 준다.

> 나 임제는 성질이 거칠고 뻣뻣한 사람이라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고 자못 호협하게 놀기를 일삼아 기방이며, 술집으로 발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나이 이십이 가까워 비로소 배움에 뜻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힘써 배운 것이라곤 글귀를 교묘하게 다듬고 정문을 지어 사람의 눈을 현혹하며 당세에 이름을 얻고자 하는데 지나지 못했다. 그 후 여러번 과장에서 낙방하고 세속에 맞는 취향이 적어 홀연 멀리 노닐 생각이 일어났다.[68]

임제가 자신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은 자서전적인 이야기다. 이는 원자허의 처지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임제는 어린 시절에 공부보다는 호협하게 놀기를 일삼아 기방이며 술집에 드나들기를 즐겨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임제의 젊었을 적 삶은 자유분방하고 성격이 호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겨우 20세가 다 되어 비로소 배움에 뜻을 두었으며, 이윽고 과거에 응시한다는 것으로 볼 때, 현실 참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였으며 정치에 대한 포부를 펼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낙방으로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방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몽유세계의 서사를 살펴보겠다. 먼저 幅巾子와 임금의 대화를 본다.

> 요임금과 순임금과 탕왕과 무왕은 만고의 죄인입니다. 후세에 음흉한 농간을 부려 왕위를 찬탈한 자들이 선양 받았다며 요순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공격한 자들이 탕왕과 무왕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끝내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으니,

68) "某麤豪人耳, 早歲失學,頗事俠遊, 娼樓酒肆, 浪迹將遍. 年垂二十, 始志于學. 而其所學亦不過雕章繪句, 務爲程文, 眩有司之目, 而圖當世之名矣. 其後屢屈科場, 無適俗之調, 忽起遠遊之志."(임제, 「意馬賦」, 『林白湖集』 권4; 신해진, 앞의 책, 110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아, 이 네 임금이 도적의 嚆矢입니다.[69]

이 인용문은 복건자가 夢遊의 세계로 들어가서 임금과 토론한 첫 대목이다. 복건자는 봉건왕조의 전시대를 통틀어 성군으로서, 그 권위와 지위를 한 번도 의심받아본 일 없는 堯·舜·湯·武까지 萬古의 죄인이라고 비평하고 있다. 堯와 舜은 그들의 아들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왕위를 요는 순에게 물려주고 순은 禹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이며, 湯은 夏나라 桀의 신하로서 걸이 폭군이기 때문에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으며, 무는 殷나라 紂의 신하로서 주가 포악하기에 역시 쫓아내고 자신이 임금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효온이 「六臣傳」에서 세조를 폄하한 것에 염두에 두고, 작자는 복건자를 통해서 과격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와 같이 하도록 한 것은 그 만큼 「육신전」이 작가에게 주었던 충격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만 한정한다면, 중세시대의 통치 권력이 항상 들고 나오는 명분론의 허위성과 통치권력 자체의 정당성이 여지없이 의심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작자는 세조가 불의의 세력으로 정통의 천명을 빙자한 선위의 명분을 세워 지배체제를 합리화함을 지적한 것이다.[70] 이는 단종을 강압하여 왕위를 계승받는 세조를 우의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임금의 다른 의견을 보겠다.

어허, 이 무슨 말이오! 네 임금의 성스러운 덕을 지니고 네 임금의 시대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네 임금의 성스러운 덕도 없고 네 임금의 시대도 아닌데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된 일이오. 저 네 분 임금께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분들을 빙자하고 명분으로 삼은자들이 도적일 뿐이오.[71]

이 인용문은 복건자의 비난에 의한 단종의 말이다. 天命과 人心으로 한 선위는 요·순·탕·무의 시대에는 정당한 것이며, 반면 덕이 없는 임금이 요·순·탕·무를 빙자

69) "堯·舜·湯·武, 萬古之罪人也. 後世之狐媚取禪者, 藉焉, 以臣伐君者, 名焉. 千載滔滔, 卒莫之救, 咄咄四君, 爲賊嚆矢矣."(「원생몽유록」, 169면)
70) 신해진, 앞의 책, 157면 참조.
71) "惡!是何言也? 有四君之聖, 而虛四君之時, 則可, 無四君之聖, 而非四君之時, 則不可. 彼四君者, 豈有罪哉? 顧藉之者, 名之者, 賊也."(「원생몽유록」, 16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것이 오히려 그릇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당시에 세조가 왕위를 승계할 때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유약한 군주 때문으로, 위난에 처한 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천명에 의한 선위를 받았다는 것이었다.[72] 이처럼 사대부들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명분을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던 시기의 시대적 정치상황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은 자신의 德과 時世의 정황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복건자가 왕에게 사죄함으로써 그 문제는 일단락되어 진다. 여기에서 복건자의 과격한 문제제기를 사죄함으로서 일단락 짓는 것은 세조를 이은 '현왕권 또는 현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73] 다시 말해 임제가 살았던 당대는 이미 세조의 왕위 정통성은 심각한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 있었고, 당대의 왕권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작품의 주인공인 원자허는 정치에 대한 포부를 펼치고자 하였으나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방황을 하였다. 임제는 사대부들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요·순·탕·무를 빙자한 명분으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던 시기의 시대적 정치상황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 死六臣의 節義

다음은 死六臣의 절의에 대한 문제이다.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려는 시도는 중종반정 이후 정국을 주도하던 초기 士林들로부터 거론되었으며, 宣祖代에 朴啓賢이 「六臣傳」을 거론하며 成三問을 충신이라 논하였다.[74] 박계현은 「육신전」을 읽고 이들을 충신으로 확신하고는 선조에게 「육신전」을 읽기를 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南孝溫을 불공대천의 역적으로 단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

72) 정학성, 「<원생몽유록>연구」, 우쾌제 편, 앞의 책, 111면 참조.
73) 신해진, 앞의 책, 157면 참조.
74) 박계현은 임제가 일생의 知己로 삼고 흉금을 털어 놓고 사귀던 인물이다. 자세한 것은 정학성이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정학성, 앞의 논문, 113면, 주 29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이, 경연관이 아뢴 바에 따라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을 가져다 보고 나서 삼공을 불러 전교하였다.

"이제 이른바 「六臣傳」을 보니 매우 놀랍다. 내가 처음에는 이와 같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이려니 여겼었는데, 직접 그 글을 보니 춥지 않은 데도 떨린다. (…) 이로써 보건대 이들은 자기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후세에도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드러내서 아울러 논하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은 각기 군주를 위하는 것인데 이들은 우리 조선의 불공대천의 역적이니 이들은 오늘날 신하로는 차마 볼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글을 모두 거두어 불태우고 누구든 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자가 있으면 그도 중하게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어떠한가?"[75]

이 인용문은 선조가 「육신전」을 읽고 노발대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글이다. 남효온의 「육신전」은 세조의 잔혹함과 사육신의 절의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놓아 민감하고 위험한 서사적 발언이었다. 남효온이 「육신전」을 지었을 때, 그의 문생과 친구들이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말렸을 정도로 세조를 폄하한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육신전」은 세조의 직접적인 비판과 폄하 속에 死六臣의 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한 것이다.

몽중에서 시를 읊조린 5인의 인물형상에는 작자가 癸酉년의 사건을 보는 안목이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신하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정권에 대해서 이들의 절의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

75) "上因經筵官所啓, 取南孝溫六臣傳, 觀之, 招三公, 傳曰: '今見所謂六臣傳, 極可驚駭. 予初不料至於如此, 乃爲下人所誤, 日見其書, 不寒而栗. (…) 由玆以觀, 此輩非獨不得致忠於其主, 亦不可爲法於後世也. 故予今表而竝論之. 況人各爲主, 此輩與我朝, 乃不共戴天之賊, 則此書非今日臣子所可忍見. 余欲盡取此書而焚之, 或偶語者, 亦重治何如?'"(『宣祖實錄』 선조 9년 6월 24일) 임제가 작자라고 보는 연구자들의 설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을 들어 주장한다. 주목할 점이 정출헌은 "사육신을 충절의 인물로 복권시키고자 했던 士林들이 우회적인 선택의 방안으로 세조의 정통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사육신의 충절을 돋보이게 만드는 유화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서사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육신전」을 창작 원천으로 삼아 시대적·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몽유서사의 형식으로 「원생몽유록」이 탄생되게 되었다. 「원생몽유록」은 「육신전」과 달리 세조를 문면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고 단종과 사육신은 구천을 떠도는 원혼으로 바꿔 놓고, 그들의 모임을 가공의 인물이 꿈꾼 일이라고 에둘러 말하는 서사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였다(정출헌, 앞의 논문. 24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린 임금 보좌 못한 재주 한스러워

나라 잃고 임금 욕 당한 뒤 내 목숨도 잃었네.

하늘과 땅 앞에 부끄러워라

더 일찍 도모하지 못한 일 후회스럽네.[76]

이 시는 첫째 자리에 앉은 이가 읊조린 것이다. 이는 朴彭年을 시화한 것이다. 거사가 실패하여 사태가 더 악화되고 공연히 端宗의 명까지 재촉하였다고 한탄한다는 내용이다. 박팽년은 世祖가 왕위에 선양되자 한차례 자살을 도모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성삼문이 극구 말리면서 아직 상왕과 자신들이 있으니 훗날을 기약하자고 하였다. 만약 그 일이 실패한다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는다고 설득하여 따랐다. 그러다가 이듬해 형조참판이 되었다. 이때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金叱의 밀고로 체포되어 사형 당하였다. 결국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였다. 결구에서 '일찍이 도모치 못함을 후회스럽다'고 한 것은 거사를 늦추었던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거사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절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선왕의 유명 받고 큰 은총 입었으니

위기에 처해 어찌 내 목숨 아끼리.

가련해라 몸은 죽었어도 이름은 빛나니

父子가 함께 의리를 위해 목숨 바쳤네.[77]

이 시는 둘째 자리에 앉은 이가 읊조린 것이다. 이는 成三問을 시화한 것이다. 선왕의 명과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사육신 전체에 해당된다. 3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종 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肉身은 비록 죽더라도, 절의를 지킨 이름은 영원히 남

76) "深恨才非可托孤, 國移君辱更損軀. 如今俯仰慙天地, 悔不當年早自圖."(「원생몽유록」, 170면)
77) "受命先朝荷寵隆, 臨危肯惜殞微躬? 可憐死去名猶烈, 取義成仁父子同."(「원생몽유록」, 17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결구의 '부자가 함께'라고 한 것은 아버지인 成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도 단종의 복위를 위한 모의에 가담했다가 처형되었다. 이 시를 통해서 성삼문 부자가 의로운 인물임을 말하고 있다.

굳센 절개를 벼슬로 더럽히랴
가슴 속엔 여전히 고사리 캐는 마음 품었네.
내 한 몸 죽는 것쯤 애석할 것 없거늘
침에 계신 의제 생각에 통곡할 뿐이네.[78]

이 시는 셋째 자리에 앉은 이가 읊조린 것이다. 이는 河緯地을 시화한 것이다. 金宗瑞을 주살하고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하위지는 조복을 모두 팔고 은퇴하였다. 세조가 왕위를 선양 받고 그를 부르는 조서에 응하여 예조 참판의 자리에 나섰다. 그러나 세조의 녹을 부끄러워하여, 별실에 녹봉을 쌓아두고 먹지 않았다고 한다. 결구는 항우가 의제를 郴땅에 옮겨 유폐시킨 고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단종의 유폐를 안타까워하며 더욱 통곡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위지의 충절을 더욱 극대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천신은 본래 담대하거늘
구차히 살겠다고 패륜을 방관하랴.
죽음 앞두고 지은 시 있느니
두 마음 품은 자들 부끄러우리.[79]

이 시는 넷째 자리에 앉은 이가 읊조린 것이다. 이는 李塏를 시화한 것이다. 이개는 위인이 마르고 약했으나 엄한 형벌을 받고도 전혀 안색의 변화가 없어, 사람들

78) "壯節寧爲爵祿淫? 含章猶抱採薇心. 殘軀一死何須惜? 痛哭當年帝在郴."(「원생몽유록」, 171면)
79) "徵臣自有膽輪困, 那忍偸生見喪倫? 將死一詩言也善, 可能慙愧二心人."(「원생몽유록」, 17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그를 장하게 여겼다. 작자는 여기에서도 충절을 받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글퍼라 그날의 마음 어떠했던가
죽음이 있을 뿐 그 뒤의 명예야 논할 것 없네.
씻지 못할 천추의 한은
집현전에서 수양대군 기리는 글 지어 준 일일세.[80]

이 시는 다섯째 자리에 앉은 이가 읊조린 것이다. 이는 柳誠源을 시화한 것이다. 유성원은 모의가 발각되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집에 돌아가 자결했다. 당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자, 수양대군을 추종하는 무리가 협박하여 수양대군을 중국의 周公에 견주어 그 공을 포상하는 敎書를 짓게 되었다. 3·4구는 비록 협박일지라도 그런 행위를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앞의 2구는 형장에서 명예롭게 죽지 않고 급히 귀가하여 자결하였다가, 뒤에 시체가 찢기어 나가는 수모를 당했던 사실을 해명한 것이다. 결국 충절을 지키기 위해 죽은 자신의 절행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武人인 兪應孚를 시화한 내용을 보자.

우수수 부는 바람에
나뭇잎 지고 물결 차가운데
칼 어루만지며 길게 휘파람 부니
북두성이 기울었네.
살아서는 충과 효를 다했고
죽어서는 굳센 혼백 되었네.
내 마음 무엇을 닮았나
저 둥근 달을 닮았네.
아아! 애당초 함께 도모하지 말았어야지

80) “哀哀當日意何如? 死耳寧論身後譽? 最恨千秋難雪恥, 集賢曾草賞功書.”(「원생몽유록」, 17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썩은 선비 누구를 책하리.[81]

이 시는 무인의 기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논한 5인의 시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응부는 단종 복위의 실패는 집현전 중심 학자들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이라고 慨歎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세조 2년(1456)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모의할 때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초청하는 날에 거사하기로 했다. 이에 유응부와 성승 등을 別雲劍으로 선정하였다. 그 자리에서 세조를 살해하고 단종을 세우기로 한 계획을 곧바로 실천에 옮기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삼문과 박팽년이 만전의 계책이 아니라면서 극구 만류해서 그 거사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시에서는 문인들의 나약함을 지적하면서 무인의 기개를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익명으로 시화된 5인의 인물은 박팽년, 성삼문, 하위지, 이개, 유성룡이다. 이들은 집현전 중심 학자들로 단종 복의에 앞장선 주축들이다. 5편의 시는 단종에 대한 사육신의 절의를 형상화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武人인 유응부를 등장 시켜, 무인으로써의 기개와 강개함을 부각시켰다. 여기에서 사육신이 실천한 절의를 바라보는 임제의 재해석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사육신의 절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임제의 의식을 가탁한 허구적 인물인 원자허가 지닌 의식을 살펴본다.

지난 일 누구에게 물을까
황량한 산에 저 무덤 하나뿐.
정위는 깊은 한 품고 죽었고
두견새는 넋 끊어져 시름겹네.
언제 고국산천 돌아갈까
오늘은 강가 정자에 노니네.

81) “風蕭蕭兮, 木落波寒. 撫劒長嘯兮, 星斗蘭干. 生全忠孝, 死作毅魂. 襟懷何似, 一輪明月. 嗟不可與慮始, 腐儒誰責?”(「원생몽유록」, 17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몇 곡의 노래 슬프기만 한데

지는 달 아래 갈대꽃 피었네.[82]

원자허의 시는 폐주 단종에 대한 후대인의 감회를 읊는 것이다. 원자허는 이 사건을 이미 지나간 역사로 바라보았다. 그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곳은 '말없는 무덤뿐'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회한이란 사육신이 실천한 절의가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당대의 정치 현실에 대한 회한을 말한 것이다. 또한 동서분당이라는 사림의 분열을 직면하여 말 한 것이다. 즉 그 雪冤되지 않은 사육신의 절의를 기리고자 하는 후대인의 회한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임제가 혼란스런 당대를 바라보고 느끼는 비애감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복건자의 시에서 더욱 더 심화된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산하를 둘러보니 예전과 다른데

정자에 오르니 초나라 죄수의 슬픔 일어나네.

나라 잃고 놀란 마음 애간장 찢어지고

간약한 자들에 격분하여 눈물이 흐르네.

율리 맑은 바람 속에 陶淵明은 늙어 갔고

수양산 찬 달빛 아래 伯夷는 굶주렸네.

한 편의 야사를 후세에 전하노니

천년토록 선과 악의 스승 노릇 하리라.[83]

1·2구는 패망한 왕조의 신하들 곧 사육신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무기력한 모습은 사육신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천한 절의를 제대

82) "往事凭誰問? 荒山土一丘. 恨深精衛死, 魂斷杜鵑愁. 故國何時返? 江樓此日遊. 悲凉歌數闋, 殘月荻花秋."(「원생몽유록」, 172면)

83) "擧目山河異昔時, 新亭共作楚囚悲. 心驚興廢肝腸裂, 憤切忠邪涕淚垂. 栗里淸風元亮老, 首陽寒月伯夷飢. 一編野史堪傳後, 千載應爲善惡師."(「원생몽유록」, 17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계승하지 못한 원자허가 당대의 입장에서 본 모습이다. 3·4구는 충성과 義憤의 감정에 복받쳐 절의로서 자기 한 몸을 바칠 듯한 남효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곧 남효온이 절의를 지킨 신하와 그렇지 못한 신하들을 보며 분격하는 모습이다. 5·6구는 生六臣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자허는 사육신보다 남효온에게 더욱 애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7·8구에서 잘 나타고 있다. 사육신에 관련된 「육신전」의 이야기가 과거 절의의 행적을 밝혀주어 선악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임제는 사육신들이 실천한 절의를 후대인에게 계승할 수 있게 해 준 남효온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짐작된다.[84]

다음은 임제가 청명 있는 선비로서 世界를 인식했는지 다음 시에서 살펴본다.

어짊과 사악함이 한가지로 뒤엉키니
천지 다시 요순시대 될 수 있을런지.
취하면 근심 사라지지만
술 깨면 세상걱정 길어지누나.[85]

이 시에는 임제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즉 당대를 賢·邪 조차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현실로 파악하고 있다. 권세를 장악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관료층의 기회주의적 타락을 이렇게 본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제는 자신의 시대를 의리가 아닌, 名利를 추구하는 현실로 인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한 작자의 비분으로서 요순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고 있다. 취하면 사대부적 이상을 좌절시키는 지배 권력의 불의와 횡포를 눈감을 수 있지만, 다시 깨면 고뇌에 찬 현실로 되돌아와 걱정이 많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임제는 자신의 시대를 어리석음과 치졸함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지녔던 임제는 사육신에 대한 추모가

84) 원용문, 「<원생몽유록>의 작자 문제」, 우쾌제 편, 앞의 책, 228면 참조.
85) "賢邪一混沌, 天地再虞唐. 醉去閑愁破, 醒來世慮長."(임제, 「悼灌園先生」, 『林白湖集』 권1; 신해진, 앞의 책, 159면의 번역을 재인용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닌, 그들이 실천한 절의를 간절히 바랐던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원생몽유록」을 지을 때 시정의 잘잘못을 간할 수 있는 청명이 있는 선비들이 없는 정치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임제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사들의 나약한 절의가 아니라 '무사의 기개가 있는 절의'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86]

> 예로부터 군주가 사리에 어둡고 신하가 어리석어 끝내 망국에 이르고 만 일이 많았지. 지금 그 임금을 보건대 필시 현명한 군주요 그 여섯 사람 또한 모두 충성스럽고 의로운 신하로군. 이처럼 훌륭한 신하들이 이처럼 훌륭한 군주를 보필했거늘 어찌 이처럼 참혹한 일을 당했단 말인가? 아아! 어쩔 수 없는 형세 때문인가? 어쩔 수 없는 시운 때문인가? 그렇다면 시운과 형세 탓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천명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네. 천명으로 귀결된다면 착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천도가 아니던가? 천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둡고 막막해서 그 이치를 알 도리가 없으니, 아득한 이 우주에 뜻있는 선비의 시름만 늘어날 뿐일세.[87]

이 인용문은 해월거사의 단종 폐위의 과거에 대한 논평이다. 전반부는 현군과 충신들이 있었음에도 폐위한 단종에 대하여 해월거사의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대세와 하늘의 뜻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시세가 그랬으니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후반부에서는 사육신들이 실천한 절의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평은 과거문제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제까지 중첩되고 있다. 훈구와 사림의 대립 그리고 사림의 분열이라는 당대 상황에 대한 평가로 보인다. 임제는 왕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 상황에서 出仕入貢하고자 했고, 벼슬을 하면 응당 庭園候에 봉해진 반초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임제에게는 그 해결책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

86) 신해진, 앞의 책, 160면 참조.

87) "大抵自古昔以來, 主暗臣昏, 卒至顚覆者多矣. 今觀其主, 想必賢明之主也. 其臣六人者, 亦皆忠義之臣也. 安有以如此等臣, 輔如此等主, 而若是其慘酷者乎? 嗚呼! 勢使然耶? 時使然耶? 然則不可不歸之於時與勢, 而亦不可不歸之於天也. 歸之於天, 則福善禍淫, 非天道也耶? 不歸之於天, 則冥然寞然, 此理難詳, 宇宙悠悠, 徒增志士之懷也已."(「원생몽유록」, 17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 그래서 벼슬길에 나아 간지 두 달만에 벌써 강호한정을 꿈꾸었던 것이다. 해월거사의 총평을 통해서 작자의 '天道 실현의 염원'을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88]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작자는 「원생몽유록」을 통하여 당대의 문제적 현실을 담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의 사건을 인용하였다. 사육신들이 실천한 절의와 해월거사의 총평을 통해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 그리고 사림의 분열이라는 당대 상황을 우의적으로 비판하였으며 더불어 '天道 실현의 염원'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88) 신해진, 앞의 책, 161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

앞서 각각의 서사에 내재된 이념을 살핀 바 있다. Ⅱ장의 「남염부주지」에서는 김시습의 종교관과 민본주의 治世觀을, Ⅲ장 1절의 「안빙몽유록」에서는 이념적 갈등, 2절의 「원생몽유록」에서는 天道 실현의 염원에 대해서 이념을 논의하였다.

각각의 서사에서의 주요 쟁점은 「남염부주지」는 현실 불교 폐단 및 당시 세조의 폭압정치에 대한 비판을, 「원생몽유록」은 사육신의 절의와 당시 체제에 대한 비판을 그려내었다. 세조의 왕위 찬탈과 전제 정치에 반대하는 「남염부주지」에 이어, 100년이 지난 후에 창작된 「원생몽유록」은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복권이 성사되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대단히 불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안빙몽유록」은 「남염부지주」와 「원생몽유록」과 달리 갈등이나 이념의 표출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정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작품도 아니다. 당연이 주제의식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각 서사에서 표출되는 이념은 당시 사회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실 불교 및 체제 비판: 「남염부주지」

15세기 김시습이 살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혼돈 상태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儒佛교체를 통한 신유학이 지배이념으로 확립되는 사상적 전환의 단계였으며, 둘째,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등극하면서 집권세력이 급격하게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교적 이념이 실추되어 사회가 극심하게 불안한 시기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회사가 서사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는 성리학적 주체의 구성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시도되고 있던 시기였다.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管制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개혁과 함께 典禮, 儀式을 정리하고 새 儀禮를 정착시키고자 힘썼다. 토속 신앙과 그 의식을 淫祀로 규정하여 정리하고 高麗 이래로 보편화되어 있던 불교와 그 의례를 斥佛의 명분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에 정비하였다. 동시에 성리학 및 그 전례를 왕조의 기본적인 윤리 규범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89]

이렇듯 조선왕조는 抑佛崇儒를 그 주요 국가정책의 하나로 표방하면서 시작되었지만, 그 정책은 현실과의 괴리로 인하여 잦은 갈등을 빚으면서 깔끔하게 관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그에 저항하는 내재적 요인이 있었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 수행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국왕 자신이 불가에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성리학 이념을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왕실에서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왕실 불교의 실태와 추이를 살핀다.

세조는 세종대의 수양대군 시절에 이미 好佛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 會를 파하고는 首陽大君이 경찬회를 그림으로 그리고, 또 契文을 지어 모임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을 벌여 써서 軸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으니, 注書 成任도 참여하였다.
>
> 수양대군이 말하였다.
>
> "너는 孔子의 道와 釋迦가 누가 낫다고 이르느냐."
>
> 성임이 대답하였다.
>
> "공자의 도는 내가 일찍이 그 글을 읽어서 대강 그 뜻을 알거니와, 釋氏에 이르러서는 내가 일찍이 그 글을 보지 못하였으니, 감히 알지 못합니다."
>
> 대군이 말하였다.
>
> "석씨의 도가 공자보다 나은 것은 하늘과 땅 같을 뿐만 아니다. 先儒가 말하기를, '비록 挫燒舂磨하고자 할지라도 베푸는 바가 없다."
>
> 이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한 것이다.[90]

---

89) 이병휴, 「사림파의 祀典개혁운동」,『조선전기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2002, 161면 참조.

90) "會罷, 首陽大君圖慶讚會, 又製契文, 列書與會人名, 作軸分與之. 注書成任亦與焉, 首陽大君語曰: '汝謂孔子之道, 與釋迦孰優?' 任曰: '孔子之道, 吾嘗讀其書, 粗知其義, 至若釋氏, 吾不嘗見, 其書未敢知也.' 大君曰: '釋氏之道過孔子, 不啻霄壤.' 先儒曰: '雖欲挫燒舂磨, 無所施.' 此未知其理而妄言者也."(『世宗實錄』 세종 30년 12월 5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의 인용문은 世宗 30년 12월 臣僚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불당이 마침내 건립된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과 함께 불당의 건립에 호의적이었다. 행사가 5일 동안 거행되었다가 끝난 후에 慶讚會를 그림으로 그린 것과 成任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好佛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양대군 시절에도 이와 같았으니 정권을 잡은 世祖代에는 더 말할 나위없었다.

> 성상께서 주자소에서『法華經』등 여러 經 수백 件을 印行하게 하였고, 또『大藏經』50벌을 인행하였는데, 또 이제『釋譜』를 간행하시니,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옳지 못한가 합니다.[91]

이 인용문은 世祖 4년 2월 세조가 思政殿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정인지가 御床 아래에 나아가 아뢴 말이다. 儒臣으로써 불경 간행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세조는 怒하여 연회를 罷하였다. 다음날 세조는 종친과 중신, 공신들을 거느리고 후원에서 활쏘기를 관람하는데 도승지 曺錫文을 시켜 힐문하였다.

> 임금이 조석문으로 하여금 鄭麟趾를 힐문하게 하였다.
> '내가 福世庵을 세우고 經紙를 만들어도 경은 대신으로서 한마디 말도 없더니, 바로 어제 醉中에 나를 욕보임은 무슨 연고인가?'
> 대답하기였다.
> "취중의 일이라 살펴 기억하지 못합니다."
> 또 조석문에게 명하여 말하게 하였다.
> "어제의 말은 卿이 취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 지금은 경이 취하지 않았으니 일일이 내게 고하라. 부처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떠하며, 유학의 도리가 되는 것은 어떠한가?"
> 정인지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였다.[92]

---

91) "上於鑄字所印『法華經』等諸經數百件, 又印『大藏經』五十件, 且今刊『釋譜』, 臣竊以爲未可."(『世祖實錄』 세조 4년 2월 12일)

92) "上令錫文詰麟趾曰: '予建福世庵造經紙, 卿以大臣無一言, 乃於昨日, 醉中辱我, 何也?' 對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鄭麟趾는 세조를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정인지는 성리학적 이념에 위배되는 세조의 好佛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불경간행을 반대한 정인지의 발언은 취중에 한 망언으로 보이지만, 왕실에서는 여전히 불교의 숭상이 횡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세조는 불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우기고 있으나 군왕은 불교를 가까이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왕실의 모순은 비단 세조대의 형국이 아니라 세종대에서부터 파행된 것으로 이를 거슬러 올라가 살핀다.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內佛堂[93]을 둘러싼 문제에서 잘 나타나 있다.

> 불교의 道란 괴상 허탄하고 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 조그마한 보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상께서 이러한 이치를 깊이 통촉하시고서 이미 여러 종파를 감하셨고, 또 內佛堂을 혁파하셨으니, 무릇 그 배척하시는 도리에 있어 실로 前古에 뛰어나신 바 있었는데, 오늘에 이르러 불골과 사리를 금중에 갈무리하실 줄이야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그윽이 헤아리옵건대, 이는 전하께서 이 물건을 존숭 신봉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조종께서 전하시던 것을 갑자기 밖으로 내보내실 수 없다는 생각이신 것으로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불교의 물건이란 불당에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이를 內府에 갈무리해 두신다면 만대에 법을 드리우시는 뜻으로 볼 때 어떻게 되오며, 귀신을 敬遠하는 의미에서도 어찌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굽어 신 등의 지극한 정원에 좇으시와 조속히 밖으로 내보내도록 명하옵소서.[94]

曰: '醉中之事, 不得省記.' 又命錫文語之曰: '昨日之言則卿以爲醉而不記, 今卿不醉, 可一一告我. 佛之爲道何如? 儒之爲道何如?' 麟趾不明言."(『世祖實錄』 세조 4년 2월 12일)

93) 내불당은 궐 안에 세워져 있던 불당으로, 건립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세종이 즉위할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존속 되어졌다(이병휴, 앞의 책, 163면 참조).

94) "佛氏之道, 詭怪誕妄, 背倫逆理, 於其治道, 未有小補. 今我聖上深燭是理, 旣減諸宗, 又罷內佛堂, 凡其排斥之道, 夐越前古, 豈意今日佛骨捨利藏諸內府乎? 竊料殿下非敢崇信此物, 但以祖宗所傳, 未遽出外耳. 然佛家之物, 宜置佛宇, 若藏之內府, 則其於垂憲萬世之意何如? 敬鬼神而遠之之意, 亦何如? 伏望殿下, 俯從臣子之情, 亟命出外."(『世宗實錄』 세종 20년 7월 6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인용문은 세종 20년 7월의 일이다. 사간원이 불교의 道란 괴상하고 허탄하므로 윤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길에 이익이 없다면서, 궁중의 불골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상소하였다. 이는 불교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왕조가 추구하는 성리학적 통치체제나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후 세종 30년 7월 여러 차례에 걸쳐 내불당의 혁파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현전의 直提學인 辛碩祖 등이 거듭 상소하였다.

> 신 등이 佛堂을 정지하기를 청하여 혹은 입으로 혹은 疏로 宸聰을 번독한 것이 연이어 십 수차에 이르렀으나, 마침내 윤허를 얻지 못하여 다시 정성을 다하여서 기필코 청을 얻은 뒤에 말려고 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匹夫나 匹婦도 자손을 가르치는 데에 오히려 義方으로 하여 간사한 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은 家法을 바르고 門戶를 떨어뜨리지 않자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주의 높음으로서 조종의 부탁하여 준 중함을 받아서 만세의 계책을 하는 자가 장차 자손이 바른 도를 듣고 바른 일을 행하여 조종의 基業을 보전하여서 국가로 하여금 길이 다스리고 오래 편안하려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손이 간사한 말을 익히고 간사한 도를 행하여 조종의 기업을 무너뜨리어 국가로 하여금 위태하고 망하게 하기를 반드시 齊襄 梁武의 覆轍과 같이 하려 하겠습니까.[95]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대신들은 세종에게 내불당의 혁파를 수차에 걸쳐 강력히 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는 邪道로서 正道와 사도의 택일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급기야는 성균관과 사학 생도들의 공관의 극한투쟁으로 이어진다.

---

95) “臣等請停佛堂, 或口或疏, 陳瀆宸聰, 累至十數, 竟不蒙允, 更竭悃愊, 期於得請而後已也. 臣等竊惟匹夫匹婦敎子孫, 尙以義方, 不納於邪, 欲以正家法而不墜門戶也. 況以人主之尊, 承祖宗付畀之重, 爲萬世計者, 將欲子孫聞正道行正事, 以保祖宗之基, 使國家長治久安乎! 欲子孫習邪說行邪道, 隳祖宗之業, 使國家危亡, 必如齊襄·梁武之覆轍乎?”(『世宗實錄』 세종 30년 7월 21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드디어 義禁府에 전지하였다.

"성균·생원·진사·유학과 사부 생도로 나이 20세 이상인 자는 아울러 추국하여 아뢰라." 左承旨 趙瑞安을 명하여 가서 묻게 하고, 인하여 이르렀다.

"앞장서서 의논을 주창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르고서 방을 붙이고 학업을 파한 자를 갖추 물어서 아뢰라. 만일 승복하지 않거든 고문하여 아뢰라."[96]

국왕은 그들 중 20세 이상 되는 자들을 모두 추국하고 복명하도록 의금부에 전교함에 이르게 된다. 세종과 대신들의 사이에 내불당의 문제가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세종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불당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말년에 이르러 자신이 우선 病弱해진 데다가 두 대군이 연달아 죽고, 왕후 또한 죽음으로써 심약해져서 불가를 탐닉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세종대는 집현전을 통한 많은 유학자의 양성과 유교적 의례제도를 정비하고, 수준 높은 유교정치가 펼쳐진 시기로 볼 때 불교정책은 하나의 모순이 되고 있다. 公人인 국왕으로서 수행해야 할 불교정책과 私人으로서 그가 지닌 불교에 대한 생각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로서의 국왕의 위치는 公私의 구별이 실제로 명확하지 못하였다. 즉, 세종의 私人으로서의 신앙은 곧 왕실의 불교에 대한 자세를 규정짓도록 만들고, 왕실의 불교는 역으로 국왕의 신앙을 증폭시켰을 것이며, 이는 나아가 臣僚들에 의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 해석되기 마련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왕의 私的인 신앙은 국가정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私人으로서의 국왕의 행위 유형과 범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기인한 것이다.[97]

그 이후에도 臣僚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불당은 마침내 건립된다.

---

96) "遂下傳旨于義禁府曰: '成均生員進士幼學及四部生徒年二十歲以上者, 竝推鞫以聞.' 命左承旨趙瑞安, 往問之. 仍謂曰: '首倡議諭衆, 張榜罷學者, 備問以啓, 若不承, 拷掠以聞.'"(『世宗實錄』 세종 30년 7월 23일)

97) 이병휴, 앞의 책, 165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佛堂이 이룩되니, 경찬회를 베풀고 5일 만에 파하였다. 불당의 제도가 사치와 화려함이 지극하여 금과 구슬이 눈을 부시게 하고, 단청이 햇볕에 빛나며, 붉은 비단으로 裁縫하여 기둥에 입혀서 柱衣라고 이름하여 더럽혀짐을 방지하고, 향나무를 새겨 山을 만들고 금부처 세 軀를 그 가운데 안치하였으니, 그 금부처는 安平大君이 일찍이 誠寧大君 집에서 감독해 만든 것이다.[98]

마침내 佛堂이 이룩되어 이를 기념하는 慶讚會가 5일간 계속되었으며,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불당의 모습은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가히 짐작이 된다.

이후에 불당 혁파에 대한 논의는 端宗代에 한 차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成宗代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미 건립되어 있는 불당을 혁파한다는 것은 건립 예방보다는 훨씬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世祖代의 경직된 정치적 분위기와 불도에 심취해 있던 국왕 자신이 불교에 대한 대응자세 등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세조가 수양대군일 때 그의 아우 안평대군과 함께 불교에 탐닉하여 세종의 불당 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이 같은 그의 불교관이 국왕이 된 후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오늘날에까지 남겨주는 민족 문화사적 업적을 남기도록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국가의 국왕으로서 斥佛政策의 勵行과 그에 기초한 성리학적 통치체제를 펼치고, 윤리질서를 세워야 할 역사적 사명의 수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흠집을 남기게 되었다. 나아가 유교적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일시적 파탄을 가져다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집현전이 해체되고 經筵이 停罷된 것이 다른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그의 불교정책이 지닌 성격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99]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염부주지」는 유학자 박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입몽 전에는 일리론으로 세간의 비평에 응대하였고, 입몽 중에는 귀신설, 불교관

98) "佛堂成, 設慶讚會, 凡五日而罷. 佛堂制作, 窮極侈麗, 金珠眩目, 丹靑耀日. 以絳綃裁縫被楹, 謂之柱衣, 以防汚毁. 刻香木爲山, 安黃金佛三軀于其中. 其金佛, 安平大君嘗監鑄于誠寧大君第, 令近仗具冠帶, 如衛大駕儀輿入于內, 親賜觀覽, 然後安于佛堂."(『世宗實錄』 세종 30년 12월 5일)

99) 이병휴, 앞의 책, 166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등은 일리론적 사유에 입각하여 정밀하게 논의되어진 민중 교화론적 논설은 궁극적으로 유학자로서의 사유의 깊이와 治理의 논리를 해명하고 있다. 김시습은 유학자로써 성리학적 논리로 현실 불교의 폐단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김시습이 시대를 고려한 논리였던 것이다. 당대의 사회적 모순은 왕실과 민간의 그릇된 俗信과 그로 인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성리학적 지배이념으로 상하에 두루 통용되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비롯한 잡신의 타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淫祀를 打破하는 것이 訓民政策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100]

김시습은 禮를 벗어난 淫祀를 비판한 바 있다. 소설 속에서조차 이처럼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당시 世間에서 행해지던 淫祀의 폐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모범을 보여야하는 왕실에서의 성리학적 이념을 저버린 현실 불교의 폐단의 정도가 심하였으니, 김시습은 「남염부주지」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실 개혁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서사 내면에 드러나 있는 이념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교적 道를 일반론적으로 논의하였지만, 결국 김시습은 당대 현실 정치에 대한 심각한 부정 의식으로 내제된 이념을 표출하고자 했다. 즉 천명을 거스르고 왕위에 올라 반대 세력을 폭압으로 눌러 참화를 불러 일으켰던 세조에 대한 비판을 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15세기 김시습이 살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혼돈 상태였다. 유불교체를 통한 신유학이 지배이념으로 확립되는 사상적 전환의 단계였으며,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는 과정에서 유교적 이념이 실추되어 사회가 극심하게 불안한 시기였다. 즉 당대는 아직 성리학이 체질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민중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무속적인 귀신관념과 습속들이 횡행하였으며, 불가 등 非性理學적 요소가 공존하였다. 더구나 왕실 불교의 실태와 추이는 매우 심하였다. 따라서 김시습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설이라는 양식을 빌어 「남염부주지」에서 당시 이율배반적인 현실 불교의 폐단 및 세조의 폭압정치에 대한 비판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즉 임금이란 德을 베풀고 禮를 근본으

100) 문범두, 앞의 책, 50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정치 논리를 피력하였으며, 폭정을 일삼는 세조를 우의적으로 비난하였다.

2. 士林의 현실 인식과 대응:「안빙몽유록」

「안빙몽유록」은 「원생몽유록」을 비롯한 여타 몽유록의 작품들에 비해 갈등이나 이념의 표출이 적은 서사로 내비쳐진다. 특히 서사가 마무리되는 시점 "선비는 이로부터 휘장을 내리고서 글만 읽고, 다시는 정원을 엿보지 않았다."에서는 허전함마저 들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몽유세계에서의 방관적 자세와 미온한 결말을 낳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당대의 작가 신광한의 정치적 지향에서 온 서사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안빙몽유록」이 창작 된 시대적 배경으로는 16세기 中宗反正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대부 내부의 정치적 알력과 부침이 심하였다. 지방 중소 지주 출신인 士林들이 중앙 정계를 장악하게 되는 변화 과정과 사림들의 정치적 진출을 또 한번 좌절 시킨 己卯士禍가 놓여 있다. 작가 신광한은 기묘사화의 피화인이었다는 점에서, 당대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작품에 적극 반영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광한은 이러한 심각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모순이나 자신의 고뇌가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기묘사화 이후의 자신의 삶이 반영되었을 뿐이다. 신광한은 기묘사화 진행과정에서 훈구파에 의해 수차례 논핵 당하였으며, 이후 삼척부사에서 파직되고 결국에는 여주 원향리에 은거하였다.

신광한이 비록 훈구계열의 가문에서 성장하였으나, 사림으로 전환한 사람으로 기묘사화 때 趙光祖와 함께 배척당하였다. 유학을 하는 선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존 사회와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Ⅲ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몽중에서의 여왕을 비롯한 여성형 인물군과 남성형 인물군의 사이에는 갈등은 있으나 대립은 심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빙도 이들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즉 이념의 차이와 갈등은 동반되어 있으나 대립하거나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엄기영이 지적하였듯이 '소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이념적 갈등으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따라서 소통이 부재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광한은 4대 사화를 직간접으로 겪었던 인물이다. 특히 중종반정 후 중종 9년 조광조를 영수로 하는 사림파의 급진적 개혁정치로 인하여, 두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에 신광한이 조광조와 의를 함께 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조광조의 유교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정치개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림파의 개혁정치의 일면은 因習·舊制의 革去와의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추진된 새 통치 질서의 수립이었다.[101] 본고에서는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賢良科 실시와 僞勳 삭제, 향촌 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사림파는 중종 13년에 '遺逸之士'를 발굴한다는 명분하에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 광조가 아뢰었다.
>
> "詞章은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사장을 전심하여 숭상하면 浮薄한 폐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사장이 있고 또 덕행이 있으면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志向이 정해지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
> 李耔가 아뢰었다.
>
> "조정에 인물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있으니 이것은 괴이한 일입니다. 한 시대의 인물을 신이 감히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어찌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사람을 선택하는 길이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막히고 있으니, 銓曹에서 사람 쓰는 것을 책망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신과 시종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천망을 의논하여 才行이 쓸 만한 사람을 얻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別試도 祖宗朝의 일이나, 한 번 이와 같이 하면 매

101) 이병휴는 사림파의 성장과 성리학적 이념의 바탕 위에 추진된 개혁정치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하나의 측면은 傳統的 因習과 舊制의 革去이며, 또 하나의 측면은 전자와의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추진된 새 통치 질서를 수립하는데 있다고 보았다(이병휴, 앞의 책, 25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 유익할 것입니다."[102]

조광조에 의해 발의된 현량과의 실시는 다수 사림파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用人之道'가 狹隘하여 科擧 급제자만을 등용하기 때문에 文詞에 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마저도 詞章의 秀麗나 門閥의 華貴에 의거하는 폐단이 많기 때문에 學問과 德行이 무시되고 있고, 설령 薦進된 인물이 있다 해도 吏曹에서 임의로 叙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량과는 과거제도가 지닌 모순과 그로 인한 참다운 인재 발굴이 어렵다는 것이 그 실시 명분으로 표방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목적은 自派세력의 확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현량과에 의해 선발된 훈구파에 의해 즉시 罷榜되었다는 점 등에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사림파의 성장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현량과에 대하여 훈구파는 '才行可用之人'은 굳이 현량과가 아니더라도 薦用할 길이 있다는 점, 현량 천거시 遺失할 가능성이 많고 策取時 그 집행에 不公이 개재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인재를 薦取하려면 才行을 겸비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며 만약 '才行兼備者'를 試取하면 行高者가 반드시 합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반정 이후의 인재 부족을 절감한 중종의 입장과 사림파의 현실적인 목표가 합치되었기 때문에 훈구파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가 강행되었던 것이다.[103]

한편 중종반정 이후 책봉된 정국공신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반정 직후부터 있어왔다. 그 논란의 초점은 功臣의 부모 및 친·인척의 蔭加事 및 同改正事, 공신의 私田·藏獲, 蓄財, 官爵 濫受, 僞勳 등이었다. 특히 위훈삭제는 靖國功臣의 최대의 論點이어서 사림파의 본격적 등장 이전에도 몇 차례 削勳 조치가 취해졌다. 즉 중종 2년 4월의 柳子光·柳承乾 父子, 8년 10월의 朴永文·辛允武 옥사와 관련된 兩人 및

102) "光祖曰: '詞章不可不取, 但專以詞章爲尙, 則恐有浮薄之弊. 有詞章而又有德行, 則固爲美矣, 志向未定之人, 則不可必信其作善也.' 李耔曰: '朝廷有人物不足之嘆, 此可怪也. 一時人物, 臣未敢知也, 豈可謂之必無乎? 國家取人之路, 極爲狹隘, 故多數礙滯, 而責銓曹用人, 亦難矣. 無乃令大臣, 侍從, 分明論薦, 得才行可用之人乎? 別試, 亦祖宗朝事也, 然一番如此爲之, 甚有益也.'"(『中宗實錄』 중종 13년 3월 11일)

103) 이병휴, 앞의 책, 27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朴永昌·辛允文·朴永蕡, 9년 2월의 반정 당시 入直承旨 尹璋·曺繼衡·李堣와 그 밖에 李希雍·孫同 등 12명이 삭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국공신에 대한 대대적인 위훈삭제 요청은 현량과의 실시를 통해 그 세력이 상승적으로 강화되어 가던 14년 11월에 제기되었다. 사림파는 76명의 공신이 僞勳이었다 하여 그 삭제를 주장하였는데, 격론의 과정을 거친 끝에 마침내 삭훈이 단행되었다.[104]

> 草創 때에 일이 황급하여 원대한 계책에 어두웠으므로, 바르게 결단하지 못하고 錄功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우리 현저한 공신까지 흐리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거의 나라를 탐욕으로 향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갈수록 울분이 더해 가니 또한 내가 어찌 감히 '함께 허물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내 어찌 공훈없이 헛되이 기록된 것을 國是로 결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05]

이는 從前의 削勳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훈구파의 대응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즉 종전의 삭훈이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는데다가 훈구파에게 큰 타격을 줄 수준은 못되었지만, 14년의 대규모 삭훈은 靖國功臣을 축으로 확립해 온 세력기반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삭훈이 단행된 며칠 후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 준 원인이 되었으며, 사화 직후 삭훈된 전원이 還錄되었다.

또한 士林派는 성리학적 윤리·통치 질서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향촌질서를 확립하려 하였다. 향촌은 말단 행정구역이기는 하나, 향촌의 안정 없이는 왕조의 통치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鄕村敎化는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림파는 그 일환으로 鄕村敎育과 鄕約 보급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런데 향촌의 안정은 사림파뿐만 아니라, 국왕이나 훈구파에게도 절실한 문제였으므로 양자의 협조 아래 향약이 시행 되었다. 그러나 사림파 주도의 향약 보급운동이 京中에까지

---

104) 같은 책, 27면 참조.

105) "事屬倉皇, 昧厥經遠之慮, 不克秉用裹斷, 用侈于功, 載用淆我功宗, 其不幾於率國而趨饕之路乎? 職是輿論激起, 愈久愈鬱, 亦越不穀, 其敢不曰與有咎焉? (…) 予詎有虛籍非勳, 不斷之以國是?"(『中宗實錄』 중종 14년 11월 11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파급되자, 위기감을 느낀 훈구파가 그에 제동을 걸려고 하였다.

이 점에서 향약 보급의 목적에 대한 사림·훈구 두 세력의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성리학적 윤리·통치 질서를 지방향촌에 정착시킴으로써 그곳에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왕조 지배세력으로서의 우위를 확보하려는데 사림파의 목적이 있었던 바, 훈구파의 제동은 그것을 간파한 데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것은 기묘사화 직후 향약이 폐지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역설적으로 입증된다.[106]

이상과 같은 사림파의 개혁 정치 가운데 일부분은 성리학 및 윤리와 통치 질서에 관한 이해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훈구파의 이해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혁론은 현실적으로 훈구파의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는 있었지만 제도로 정착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훈구 가문 출신이지만 사림을 오가면서 양자의 조화를 화두로 삼고 있던 신광한은 사대부들의 정치적 갈등과 분화 과정에서, 자신의 고민과 이념을 표출할 적절한 문학 양식을 모색했을 것이다. 바로 이 양식의 모색과정에 허구를 향한 충동이라는 16세기의 서사 환경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체제비판이나 이념을 에둘러 말하려는 우의적 소설의 전통도 작용했지만 허구를 통해, 다시 말해 서사적 흥미를 실어서 이념을 말하려는 강한 시대적 충동이 발생했을 것이다.[107]

> 상공께서 일찍이 장난삼아 쓴 것으로 기이하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저절로 기이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극하게 되어서는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놀라게도 하며, 세상에 모범이 될 만 한 것도 있고 경계 삼을 만한 것도 있다. 그리하여 백성의 도리를 세워 명교에 보탬이 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저 평범한 소설들과는 같이 말할 수 없으니 세상에 널리 보급된 것이 당연한 것이다.[108]

---

106) 이병휴, 앞의 책, 28면 참조.
107) 조현설, 위의 논문, 127면 참조.
108) "嘗游戲翰墨, 無意於奇, 而自不能不奇. 及其至也, 使人喜使人愕, 有可以範世, 有可以驚世, 其所以扶樹民彝, 有功於名敎者, 不一再. 彼尋常小說, 不同年以語, 則盛行於世, 固也."(「企齊記異跋」, 소재영, 앞의 책, 영인부록 99면; 정환국, 「<설공찬전>의 파동과 소설 인식의 추이」, 김현양 외, 앞의 책, 220면의 번역문을 재인용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글은『기재기이』의 序跋文이다. 서발문에서 보면 작품의 '기이성'을 거론하면서 명교에 보탬이 될 만한 자료로 세상에 알려졌다는 존재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소설류와의 차별성을 교화에 두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빙몽유록」은 몽유록 서사의 효시이다. 몽유록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16세기에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세기의 새로운 서사가 출현하게 된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109]

새로운 서사의 환경이 조성된 계기를 두 가지의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이전 시기부터 잠재해 있었던 소설에 대한 자연스런 욕구의 발로에서였을 것이다.[110] 사림파 중에서도 좀 더 문장에 관대하였던 자들에 의해, 소설이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조용하게 성장해 나아갔었다. 당시 소설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소설은 황당하고 외설스러워 심성수양에 방해가 되고 인륜도덕을 해한다고 여겼다. 또 황당한 일과 근거가 없는 허망한 말로 역사를 왜곡시키며, 반사회적·반체제적인 분위기를 고취하여 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힌다고 보았다. 게다가 허구성과 非史實性을 혼동하게 하므로 교육에 해롭다고 보거나, 雜駁한 문체가 典雅한 문체를 어지럽힌다는 이유이다.[111]

이렇듯 도학에 치중하던 사림파들이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여 배척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식자층의 많은 이들이 소설을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다.[112] 그리하여 문인들의 문학 창작의 도구로 몽유록의 양식이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사림파 문인들이 경술을 문장의 근본으로 삼아, 지금까지 부화했던 문풍을 바로잡아 조정과 여항간의 기강을 쇄신하고자 하였다.[113] 16세기에는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는 역사적 대응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불안을 극복하고 세

109) 조현설은 허구적 수법이 16세기 사대부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표현의 도구로 취택 되었는가를 논의한 바 있다(조현설, 앞의 논문, 124면)
110) 윤세순,「중국소설의 국내 유입과 향유 양상」, 김현양 외, 앞의 책, 103면 참조.
111) 최운식,『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사, 2004, 41~63면 참조.
112) 1531년(중종 26) 낙석거사 쓴「오륜전전」의 서문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이미 16세기 초기에『전등신화』와 같은 전기류 소설들이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전등신화』가운데「翠翠傳」이나 南戱의 연출대본「오륜전비기」가 번역되어 여항간에서까지 읽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3) 윤세순, 앞의 논문, 102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의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다.

주지하듯이 16세기에는 사회 전체가 성리학적 규범으로 재편 되어가는 시기이다. 성리학이 체계화되었고, 이렇게 체계화된 성리학으로 무장한 사림세력들은 훈구 세력과의 오랜 투쟁 끝에 마침내 정권을 잡았으며, 자신들의 이념을 향학, 서원, 교훈서 간행 등을 통해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교과서적 서적은 대중에게 다가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빙몽유록」이 「원생몽유록」과 다른 점은 서사 전개의 전반에서 흥미 추구에 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전의 형식을 빌려 의인화함으로써 문인의 취향을 농밀하게 발현시켰다.[114] 그러므로 「안빙몽유록」은 특정한 주제의식의 구현보다는 사대부 문인의 취향이라는 인간보편의 기대심리로 독자의 흥미를 고조한 것이다.[115] 「안빙몽유록」은 당시 소설이 가진 서사적 흥미는 상당한 수준의 대중화에 도달해 있었으며, 서사적 흥미를 이용한 작자의 목적 성취는 이 시기에 흔히 사용된 수법이었던 것이다. 이에 이념적 교화의 명분을 내세워 서사적 흥미를 수용하고, 나아가 허구적 수법이 16세기 사대부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표현의 매개로 몽유록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주제 의식이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에 교훈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五倫全傳」의 서문의 경우에 더욱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비록 사림 중에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조차도 글귀를 가다듬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여 화려한 문장을 구사하는 데만 골몰하니 떳떳한 도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적다. 이러하니 하물며 평범한 선비나 백성들, 아녀자들에게 있어서 이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부자가 혹 친함을 잃고, 군신이 혹 그 의리를 잃으며 (…) 이러니 풍속이 돈후해지고 세상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116]

---

114) 가전은 교훈성과 흥미성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갈래이다. 의인화된 행적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흥미 추구 양상은 16세기 소설사의 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김현양, 앞의 논문, 27면 참조).

115) 신상필, 앞의 논문, 249면 참조.

116) "雖士林中有志於學問者, 亦不過章繪句, 務爲於華藻, 而存心於倫者尙少, 而於凡庸士庶乎. 而於婦人女子乎. 由是父子或失其親, 君臣或失其義 (…) 如比而慾望俗化之歸厚, 世道之至治, 不亦難乎?"(洛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洛西居士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집권층인 사림들 가운데 彫虫篆刻의 道가 있음을 개탄하며, 이런 무리들로 말미암아 사회 기강이 무너져 내려 질서가 어지럽게 한다고 하였다. 노인들이 서로 전하는 말을 베껴 밤낮으로 이야기하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오륜을 실천한 인물의 기록은 가장 모범적인 이야기라고 강조하기까지 한다. 바야흐로 하층민들에게 교훈이 되는 자료로, 소설의 존립근거가 서고 있는 상황이다. 낙서거사의 이런 우려를 통해 역으로 성리학을 널리 전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념의 교화라는 차원에서 소설을 허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정과 여항간의 기강을 쇄신하고자, 이들 사림은 소설의 대중적인 인기와 흡인력에 착안하여 소설을 교화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서사적 흥미를 활용하여 이념적 교화를 이루려는 지배계층의 노력은 소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소설은 16세기에 이르러 점차 영역을 넓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조현설은 "전통적으로 허구는 유가들에게 교화라는 관점에서 수용되었고, 서사적 흥미에 대한 관심이 여항의 무식쟁이들에게까지도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을 한사코 거부하던 유학자들 역시 서사적 흥미라는 허구의 다른 측면에 무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된 사대부 작가들에게 허구를 향한 충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았다.117) 이런 충동은 유가적 이념에 균열을 야기 시킬 수 있어서 위험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도외시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안빙몽유록」을 창작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중종반정과 기묘사화가 놓여 있다. 조광조를 영수로 하는 사림파의 급진적 개혁 정치로 인하여, 두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훈구 가문 출신이지만 사림을 오가면서 양자의 조화를 화두로 삼고 있던 신광한은 사대부들의 이념적 갈등과 분화 과정에서, 자신의 고민과 이념을 표출할 적절한 문학 양식을 모색했을 것이다. 바로 이 양식의 모색과정에 허구를 향한 충동이라는 16세기의 서사 환경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다. 신광한은 「안빙몽유록」의 서사에 자신이 관

西居士, 「五倫全傳序」; 유탁일, 『韓國古小說批評資料集成』, 아세아문화사, 1994, 70면의 번역문을 재인용함)

117) 조현설, 앞의 논문, 12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을 가졌던 당대 정치 현실의 다양한 부조리한 면을 몽유세계 곳곳에 요약적으로 투영시켰다. 그리고 몽유자로 하여금 그 세계를 관찰하게 하여 자신이 생각한 臣者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그려내었다. 가전의 형식을 빌려 의인화함으로써, 의인화된 행적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념적 교화의 명분을 내세워 서사적 흥미를 수용하고, 나아가 허구적 수법이 16세기 사대부 지식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현의 매개로 몽유록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3. 死六臣 復權運動:「원생몽유록」

임제가 살았던 시기에는 거듭된 士禍와 黨爭으로 사대부 사회의 분열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임제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 그리고 사림의 분열이라는 당대 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단종의 복위와 사육신의 복권을 통해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앞서 Ⅲ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몽유세계는 수양대군에 의해 폐위된 후 죽은 단종,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죽음까지 이르게 된 사육신의 세계를 그려내었다. 요·순·탕·무를 비판하는 복건자의 논리를 부정하는 단종과 여섯 신화의 회한 토로, 유응부의 문신 질책 등의 몽유세계의 목소리는 사육신의 충절을 논단하였다.「원생몽유록」의 서사는 비록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당대의 세태를 우의적으로 반영한 목소리였다. 이는 단종과 사육신의 복권의 문제인 정치적 쟁점을 다룬 것이다.[118] 사육신의 좌절은 전제 왕권에 의한 사대부층의 이상에 대한 좌절을, 세조의 찬탈과 단종의 폐위는 유교적 봉건 이념에 위배되는 지배 권력의 횡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지배 권력에 의한 강상의 윤리가 침해되고 사대부층에게 수치와 좌절을 안겨준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이조 사대부들은 정면으로 시비를 가리는 논의를

118) 중종조에 사림파들이 재등장하여 적극적인 공론을 함으로써 단종의 복위문제, 사육신의 절의에 대한 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재기 되었다. 임제가「원생몽유록」을 창작할 당시에 까지도 미해결 사안이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피하고 있었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시비는 후대의 왕들에게는 바로 현존 왕권 또는 왕조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119] 선조 당시의 이러한 금제적인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고 경직된 것이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癸酉靖難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하나의 고정체로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다. 사림파는 계유정난에 있어서 신하로서의 충절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필자는 단종 복위 운동 이후로 임제가 「원생몽유록」을 창작했던 시기까지 사육신의 복권을 위한 노력으로 절의를 논하였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종 때 남효온이 소릉 복위를 상소할 때만 해도 성삼문 등이 주축이 된 단종 복위 모의를 반란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육신전」을 지어 이들을 충신으로 평가하는 단초를 열었다. 아마도 당시에 많은 수의 사대부가 내심 세조 집권이 불법적인 것이며, 단종 복위를 모의한 육신은 충신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남효온은 「육신전」의 마지막 부분 史評에서 육신과 세조의 관계를 주 무왕과 백이·숙제의 관계와 같다고 했다. 즉 은나라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서산에서 고사리를 캐어 먹었다는 백이를 충신으로 현창했다고 해서 주 무왕의 덕이 실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세조의 정통성과 업적을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충절을 높이지 못할 것도 없다는 입장에 섰던 것이다.[120]

사육신을 본격적으로 충절로 기리려는 시도는 중정반정 이후의 정국을 주도했던 초기 사림들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있었다.[121] 성삼문 등을 충신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정에서 제기된 것은 중종 12년(1517) 8월의 일이었다. 『中宗實錄』의 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종 12년(1517) 8월 5일 朝講에서 金詮·鄭順朋등, 6일 金淨, 8일에는 崔淑生과 조광조에 걸쳐 핍진하게 개진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들 기록 중에서 5일의 김전과 8일의 기록을 살펴본다.

---

119) 정학성, 앞의 논문, 112면 참조.
120) 이영두, 「단종충신 추복 논의와 세조의 사육신」, 『사학연구』 98, 2010, 31면 참조.
121) 사육신에 대한 논의가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역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성삼문·박팽년 등의 일을『續三綱行實』을 편집할 때에 신이 먼저 의논을 내어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의논이 같지 않아서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忠籍에 기록하여 褒賞하는 恩典을 극진히 해야 합니다.[122]

나) 崔淑生이 말하였다

"성삼문·박팽년은 한대 先王에게 죄를 얻기는 하였으나 그 충성된 마음은 다만 魯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절의가 夢周와 다를 것이 없으니 褒贈해야 합니다."

趙光祖가 말하였다.

"그 때에는 이미 魯山에게 몸을 바쳤으므로 신하로서의 志操를 그와 같이 잃지 않았으나, 만약에 세조에게 바쳤다면 또한 세조의 충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충신·義士는 이미 君臣의 분의를 정하고 나면 다시 달리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忠義는 만고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며, 신 등이 당대에 褒揚하고자 하는 까닭은 신하로서의 지조를 勸勵하려는 것입니다."[123]

金詮이 성삼문·박팽년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續三綱行實』에 기록하고자한 의견에 다른 대신들도 동조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최숙생과 조광조는 성삼문·박팽년의 절의도, 조광조와 다를 바가 없으니 褒贈해야함이 마땅하다고 개진하였다. 어떤 왕에게 몸 바친 충신이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왕에 대한 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증함으로써 당대 신하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권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다음 해의 중종 13년(1517) 12월의 기록에서 박세희에 의해 절의 문제가 한 차례 논의된 기록이 있다.

---

122) "成三問·朴彭年等事, 編集『續三綱行實』時, 臣倡議欲錄之, 議論不齊, 故不得錄也. 如此人, 當錄忠籍, 以極其褒賞之典也."(『中宗實錄』 중종 12년 8월 5일)

123) 崔淑生曰: '成三問·朴彭年, 雖一時得罪先王, 其赤心, 只爲魯山也, 其節義, 與夢周無異, 宜加褒贈.' 光祖曰: '當此之時, 已許身於魯山, 故不失臣子之操如此, 若委質於世祖, 則亦爲世祖之忠臣也. 忠臣義士, 已定君臣之分, 則不更他適故耳. 斯人忠義, 萬古不泯, 而臣等之欲褒揚於當代者, 勵人臣之志操也.'"(『中宗實錄』 중종 12년 8월 8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文宗 때에는 더욱 어진 신하를 존중하고 예의로 대하여 성삼문 같은 이는 節義의 말을 할 때에 죽음을 돌아보지 않았다.[1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신하들에 의해서 사육신의 충절에 대해 개진하였지만 중종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先祖인 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기묘사화(1519)가 발생되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그 뒤 인종 원년에 韓澍가 조강에 나아가 사육신의 절의에 대해 거론하였다.

魯山君이 어둡고 나이 어려 宗社가 위태로우므로 天命과 人心이 다 세조께 돌아가서 즉위하셨으니, 이것은 종사의 大計를 위하여 마지못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뒤에 성삼문·하위지·박팽년·유응부·이개·유성원 등이 亂을 꾀하다가 誅殺되었습니다. 대개 忠義의 인사는 이러한 때에 많이 나오거니와, 저 六臣은 그때에 있어서는 大罪를 입어 마땅하나, 그 본심을 논하면 옛 임금을 위한 것입니다. (…) 세조께서 六臣에 대하여 어찌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위태롭고 의심스러울 때이므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주어서 인심을 진정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亂臣이 후세의 충신이라 하였으니 바로 충의의 이름이 뒷사람에게는 아주 없어질 것이 염려되므로, 이러한 은미한 말을 하여 두 마음을 품는 신하을 경계하신 것입니다.[125]

이러한 한주의 논의는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도 유발시키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의의를 갖고 있다. 우선 처음으로 공론의 장에서 여섯 명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면서, 六臣이라는 집단적 개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론의 장에서 묶여서

124) "文宗尤爲尊禮賢臣, 故如成三問輩, 爲節義之言, 不顧身死"(『중종실록』 중종 13년 12월 26일)

125) "魯山昏弱, 宗社岌岌, 天命人心, 皆歸世祖而卽位, 此乃爲宗社大計, 而出於不得已. 厥後成三問·河緯地·朴彭年·兪應孚·李塏·柳誠源等, 謀亂伏誅. 蓋忠義之士, 多出於如此之時, 彼六臣在當時, 當蒙大罪, 論其本心, 則爲舊主也. (…) 世祖於六臣, 豈不嘉之, 然危疑之際, 不得不加罪, 以鎭人心而已. 故曰: '當代之亂臣, 後世之忠臣.' 正恐忠義之名, 泯滅於後來, 故爲此微言, 以爲人臣懷二心者戒也."(『仁祖實錄』 인조 1년 4월 9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거론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절의와 연결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기도 하다. 이는 남효온이 지은 「육신전」이 세월이 흐른 동안에도 공공연하게 꾸준히 읽혔고, 그때 만들어진 사육신에 대한 인식이 이전부터 사람들의 뇌리에는 은연중에 각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언이 등장하게 된 하나의 원인을 추정하자면, 육신에 대한 기억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절의라는 유가적 절행의 덕목으로 기억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육신의 복권과 그 후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26]

선조 이전시대까지 사육신을 충신으로 인정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는 절의라는 관점 아래 진행되었다. 이들은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충신이었으며 신하들의 절의를 培養하기 위해서는 사육신을 복권하고 追僧하므로서, 신하들의 전범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정에서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고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마침내 선조대에 이르러 공론에서 단종 복위에 대한 전말이 거론되면서 「六臣傳」이 선조의 눈길을 끌게 된다. 먼저 선조 2년, 선조와 奇大升이 나눈 대화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상이 말하였다.

"고사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武定寶鑑』만 보더라도 세조의 受禪 및 皇甫仁·金宗瑞·成三問·朴彭年이 죄받은 사실이 소상하게 실려 있었다."

大升이 아뢰었다.

"'대개는 『보감』 가운데 실려 있으나 소문을 기록한 것도 있고, 또 당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상이 말하였다.

"위에서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니 한번쯤 모든 사실에 대해 진술해 주면 좋겠다."

大升이 아뢰었다.

126) 신성환, 「사육신담론의 전변과 조선후기 시가의 수용양상」,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21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병자년에 성삼문의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상왕을 復位하려는 것이었으나, 세조는 난을 일으키려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일이 발각된 후에 상왕이 그 일에 참여해 알았다 하여 상왕을 寧越로 옮긴 것입니다."[127]

이 인용문은 宣祖와 奇大升과의 대화의 일부분만 발췌한 내용이다. 선조는 단종복위 운동의 실상이 궁금했고, 기대승은 그런 물음에 완곡하게 답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대승은『武定寶鑑』이나 의금부 기록보다는 소문이나 영월지역의 野史 기록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사람의 기록'이란 남효온의「육신전」을 가리키는 것이다.[128]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처음으로 군왕이 단종 폐위의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당시 선조는 왕위에서 쫓겨난 노산군과 연산군을 비롯하여 지난날의 충신·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추승작업을 벌이고자 했다. 비록 경연관의 요구에서 추동되었겠지만, 네 차례의 사화로 상장되는 패퇴의 시절을 끝내고 마침내 조정을 장악한 사림들은 얼룩진 과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기대승이 사림의 계보를 정몽주-길재-김숙자-김굉필-조광조라는 道統으로 정식화한 것과 사육신을 충신으로 되살리는 작업은 별개가 아니었다.[129]

마침내 선조 9년에「육신전」이 비로소 역사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낸다. 다음은 이미 Ⅲ장 2절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다시 논의한다.

가) 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판서 박계현이 입시하였다. 이어 아뢰었다.

"성삼문은 참으로 충신입니다.「육신전」은 곧 남효온이 지은 것이니 상께서 가져다가 보시면 그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127) "上曰: '古事不能詳知, 但見,『武定寶鑑』則世祖受禪及皇甫仁·金宗瑞·成三問·朴彭年被罪之事, 昭載矣.' 大升曰: '大槪載於『寶鑑』中矣. 然自有所聞, 且有一時人所記矣.' 上曰: '自上不能詳知, 一度悉陳, 爲可.' 大升曰: '丙子年, 成三問之事發覺, 其意欲復上王, 而世祖意其作亂. 及其事發之後, 以上王爲預知其事, 遷上王於寧越矣.'"(『宣祖實錄』 선조 2년 5월 21일)

128) 정출헌, 앞의 논문, 23면 참조.

129) 같은 책, 22면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즉시 「육신전」을 가져오게 하여 보고는 크게 놀라 하교하였다.

"엉터리 같은 말을 많이 써서 선조를 모욕하였으니, 나는 앞으로 모두 찾아내어 불태우겠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해 말하는 자의 죄도 다스리겠다."

뒷날 영의정 洪暹이 입시하여 육신의 충정을 극도로 말하였는데, 몹시 간절하여 듣는 이가 측은하게 여겼으며, 상도 노여움을 거두고 중지하였다.[130]

나) 지난날 우리 光廟께서 천명을 받아 中興하신 것은 진실로 人力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 남효온이란 자는 어떤 자이기에 감히 文墨을 희롱하여 국가의 일을 드러내어 기록하였단 말인가? 이는 바로 我朝의 죄인이다. (…) 저 六臣이 충신인가? 충신이라면 어째서 受禪하는 날 쾌히 죽지 않았으며, 또 어째서 신발을 신고 떠나가서 西山에서 고사리를 캐먹지 않았단 말인가? (…) 그런데도 저 육신은 무릎을 꿇고 아조를 섬기다가 匹夫의 꾀를 도모하여 刺客의 술책을 부림으로써 만에 하나 요행을 바랐고, 그 일이 실패한 뒤에는 이에 義士로 자처하였으니, 마음과 행동이 어긋난 것이라고 할 만하다. 그런데 烈丈夫라고 할 수 있겠는가?[131]

경연관인 박계현은 「육신전」을 읽고 사육신이 충신이라고 확신하고는 선조에게 「육신전」을 독서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을 불공대천의 역적으로 단정하게 된다. 선조는 六臣이 세조의 치하에서 벼슬을 한 것을 비판하였다. 결국 이들의 절의를 숭상하고자 했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육신전」을 비난하는 선조의 위압적, 독선적 논리는 대개 그가 변호하고 있는 세조의 논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천명에 의해 확립된 왕권의 권위는 신성불가침의 것이며 이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왕권의 권위를 휘두르며 언론 탄압을 서슴치 않으려

130) "上御經筵. 判書朴啓賢入侍, 仍言: '成三問眞忠臣也. 「六臣傳」, 是, 南孝溫所著, 自上取觀, 則可知其詳也.' 上卽命取「六臣傳」看, 乃大驚下敎曰: '言多謬妄, 誣辱先祖, 予將搜而悉焚之. 且治偶語其書者之罪.' 後日領議政洪暹入侍, 極言六臣之忠, 辭甚懇切, 聞者惻然, 上亦霽威而止."(『선조수정실록』 선조 9년 6월 1일)

131) "昔我光廟, 受命中興, 固非人力所致. 彼南孝溫者何人, 敢自竊弄文墨, 暴揚國事. 此乃我朝之罪也.(…) 彼六臣, 忠耶? 否? 如忠耶, 何不快死於受禪之日? 如其不然, 又何不納履而去, 採薇於西山耶? (…) 而彼六臣者, 屈膝於我朝, 奮匹夫之謀, 逞刺客之術, 以冀僥倖於萬一."(『宣祖實錄』 선조 9년 6월 24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선조의 정치적 태도는 전제 군주의 횡포를 드러내고 있다.[132]

이상으로 단종 복위 운동 이후로 임제가 「원생몽유록」을 창작했던 시기까지 사육신의 복권을 위한 노력으로 절의를 논하였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사육신을 본격적으로 충절로 기리려는 시도는 중정반정 이후의 정국을 주도했던 초기 사림들에 의해 가장 활발하였다. 사육신의 충절에 대해 개진하였지만, 기묘사화가 발생되면서 전면 중단되었다. 이 후, 仁祖代에 한 차례 翰注의 논의에서 처음으로 공론의 장에서 여섯 명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면서, 六臣이라는 집단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중요한 쟁점으로서 문제화 하지도 않았다. 드디어 宣祖代에 이르러 선조는 왕위에서 쫓겨난 노산군과 연산군을 비롯하여 지난날의 충신·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추승 작업을 벌이고자 했다. 이 때 경연관인 박계현은 「육신전」을 읽고 사육신이 충신이라고 확신하고는 선조에게 「육신전」을 독서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을 불공대천의 역적으로 단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임제는 「원생몽유록」에서 복건자 남효온의 원혼을 통해 천명을 빙자한 선위의 명분을 비난하고, 사육신의 원혼을 통해 그들의 충절과 원한을 강개한 어조로 새삼 밝히고자 하였다. 「원생몽유록」의 작품 세계는 비단 과거의 부조리를 문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 사회의 한계와 모순과 분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자 하였다.[133] 그 모순과 분열이라는 당대적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생몽유록」을 통해 天道라는 유교적 이상이 실현되기를 욕망하는 현실의 목소리로 유교의 이념적 이상이 굴절된 현실의 균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원생몽유록」은 「육신전」을 창작 원천으로 하여, 전기의 허구적 장치를 수

---

132) 정학성, 앞의 논문, 114면 참조.

133)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사대부층의 정치적 세력 확대를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선조가 전제군주로서의 성격을 표면화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그는 때마침 일게 될 붕당의 대립을 막기는커녕 사대부 세력을 약화시키고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이를 막후에서 조장함으로써 사대부의 분열과 타락을 촉진하고 봉건적 모순을 심화시킨 교활한 암주였다(성낙훈, 「한국당쟁사」, 『한국문화사대계』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5, 참조; 정학성, 앞의 논문, 115면 재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하고 몽유적 양식을 빌어, 균열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사대부적 이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결론

본고는 「남염부주지」와 「안빙몽유록」과 「원생몽유록」이라는 세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16세기 정쟁의 시대에 당시 시대상황이 서사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품들에서 표출된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傳奇이면서 夢幻 구조의 모티브를 차용한 『금오신화』의 「남염부주지」의 서사에 담긴 이념을 살폈다.

김시습은 生死와 관련된 우주 질서와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氣의 屈伸盈虛에 의한 근본원리로 파악하였다. 김시습의 이와 같은 귀신론은 「남염부주지」의 一理論과 염부주에서 박생과 염왕의 문답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성리학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김시습은 불교의 교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에 대해 갈등하고 비판하며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남염부주지」에서 볼 수 있는 그의 태도는 불교의 근본적인 뜻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지만, 본래의 뜻과는 달리 불교가 왜곡됨으로 해서 빚어지는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 김시습은 이와 같이 정립되어 있는 자신의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는 사상을 「남염부주지」에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2절에서는 혼돈의 시대를 살다간 김시습의 이념이 서사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폈다.

김시습은 「남염부주지」에서 결핍적 상황을 초래했던 박생의 불우는 한 개인의 영역이지만, 이는 문사의 입신여부를 결정짓는 관리등용의 제도와 현성한 군왕의 在·不在라는 시대적 환경에 궁극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 모두는 김시습 자신의 현재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사회적 모순에 대한 憤鬱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김시습은 德이 없는 자가 폭압으로 보위에 올랐다면 天命을 거스린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임금이란 德을 베풀고 禮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유교적 정치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리를 특별히 강조한 것으로 민본주의 政治觀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덕이 부족한 사람이 왕위에 있게 되면 민심은 떠나게 된다는 것으로 세조를 우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16세기 서사를 대표하는 신광한의『기재기이』의「안빙몽유록」과 임제의「원생몽유록」의 서사에 담긴 이념을 살폈다.

1절「안빙몽유록」에서 안빙의 입몽 전과 각몽 후의 모습은 신광한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 심신 수양하며 꿋꿋하게 선비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즉 현재의 상황으로 아직은 자신이 정계에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난세기가 끝나면 치세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정치 현실에 대한 체념으로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화원왕국은 권도가 횡행하고 군주의 절도에 맞지 않는 七情으로 기강과 체통이 바로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만연되고 언로가 폐쇄되어 뜻있는 선비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화원의 갈등은 신광한이 임금을 모시고 벼슬살이를 하던 당시의 인간적 갈등 관계, 정치 세계의 이변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신광한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여주 원형리에 은거하게 되자 과거 관직에 있을 때 현실의 부조리한 면, 즉 훈구와 사림간의 부조화로 모순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임금의 부도덕성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화원왕국을 일정하게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어떠한 신념도 표명하지 않고 다만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을 낳게 한 것은 '소통의 不在'라고 할 수 있다.

2절「원생몽유록」에서 주인공인 원자허는 정치에 대한 포부를 펼치고자 하였으나 현실의 벽을 느끼게 되어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방황을 하였다. 임제는 사대부들에게 용납되기 어려운 요·순·탕·무를 빙자한 명분으로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던 시기의 시대적 정치상황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우의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 작자는「원생몽유록」을 통하여 과거의 사건을 인용하여 당대의 문제적 현실을 담아내었다. 사육신들이 실천한 절의와 해월거사의 총평을 통해서, 훈구와 사림의 대립 그리고 사림의 분열이라는 당대 상황을 우의적으로 비판하였으며 더불어 '天道 실현의 염원'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제Ⅱ장, 제Ⅲ장에서 다루었던 「남염부주지」와 「안빙몽유록」과 「원생몽유록」에 담긴 이념을 종합하여, 작품들에게서 표출된 이념과 사회사의 관계를 추론하였다.

1절에서는 현실 불교의 폐단 및 體制 비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1주요 논의는 성리학 이념을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왕실에서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왕실 불교의 실태와 추이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5세기 김시습이 살던 사회는 매우 불안정한 혼돈 상태였다. 유불교체를 통한 신유학이 지배이념으로 확립되는 사상적 전환의 단계였으며,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는 과정에서 유교적 이념이 실추되어 사회가 극심하게 불안한 시기였다. 즉 당대는 아직 성리학이 체질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민중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무속적인 귀신관념과 습속들이 횡행하였으며, 불가 등 非性理學적 요소가 공존하였다. 더구나 왕실 불교의 실태와 추이는 매우 심하였다. 따라서 김시습은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설이라는 양식을 빌어 「남염부주지」에서 당시 이율배반적인 현실 불교의 폐단 및 세조의 폭압정치에 대한 비판을 그려내었던 것이다. 즉 임금이란 德을 베풀고 禮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는 성리학적 정치 논리를 피력하였으며, 폭정을 일삼는 세조를 우의적으로 비난하였던 것이다.

2절에서는 士林의 현실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는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賢良科 실시와 僞勳 삭제, 향촌 질서 확립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림파의 개혁정치의 일면은 因習·舊制의 革去와의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추진된 새 통치 질서의 수립이었다. 조광조를 영수로 하는 사림파의 급진적 개혁정치로 인하여, 두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훈구가문 출신이지만 사림을 오가면서 양자의 조화를 화두로 삼고 있던 신광한은 사대부들의 이념적 갈등과 분화 과정에서, 자신의 고민과 이념을 표출할 적절한 문학 양식을 모색했을 것이다. 바로 이 양식의 모색과정에 허구를 향한 충동이라는 16세기의 서사 환경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다. 신광한은 「안빙몽유록」의 서사에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당대 정치 현실의 다양한 부조리한 면을 몽유세계 곳곳에 요약적으로 투영시켰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리고 몽유자로 하여금 그 세계를 관찰하게 하여 자신이 생각한 臣者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그려내었다. 가전의 형식을 빌려 의인화함으로써, 의인화된 행적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념적 교화의 명분을 내세워 서사적 흥미를 수용하고, 나아가 허구적 수법이 16세기 사대부 지식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현의 매개로 몽유록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3절에서는 「원생몽유록」에 표출된 死六臣의 節義와 사대부 사회의 분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는 단종 복위 운동 이후로 임제가 「원생몽유록」을 창작했던 시기까지 사육신의 복권을 위한 노력으로 절의를 논하였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육신을 본격적으로 충절로 기리려는 시도는 중정반정 이후의 정국을 주도했던 초기 사림들에 의해 몇 차례 시도되었으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에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중요한 쟁점으로서 문제화 하지도 않았다. 드디어 선조대에 이르러 선조는 왕위에서 쫓겨난 노산군과 연산군을 비롯하여 지난날의 충신·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추승작업을 벌이고자 했다. 이때 경연관인 박계현은 「육신전」을 읽고 사육신이 충신이라고 확신하고는 선조에게 「육신전」을 독서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을 불공대천의 역적으로 단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임제는 「원생몽유록」에서 복건자 남효온의 원혼을 통해 천명을 빙자한 선위의 명분을 비난하고, 사육신의 원혼을 통해 그들의 충절과 원한을 강개한 어조로 새삼 밝히고자 하였다. 「원생몽유록」의 작품 세계는 비단 과거의 부조리를 문제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대부 사회의 한계와 모순과 분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 모순과 분열이라는 당대적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생몽유록」을 통해 天道라는 유교적 이상이 실현되기를 욕망하는 현실의 목소리로 유교의 이념적 이상이 굴절된 현실의 균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였다.

따라서 「원생몽유록」은 「육신전」을 창작 원천으로 하여, 전기의 허구적 장치를 수용하고 몽유적 양식을 빌어, 균열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의 사대부적 이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종합하면, 16세기는 정쟁의 시대로 훈구와 사림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되었으며, 문인들 사이에서는 당시의 사회문제를 에둘러 비판하고자 하는 도구로 몽유라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몽유록은 傳奇 양식을 수용하였으며, 허구라는 장치를 통해 사회적 이념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16세기 몽유록은 서사적 흥미를 반영하여 이념의 교화를 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1. 資料

『梅月堂集』, 고전번역원.

『林白湖集』, 고전번역원.

『朝鮮王朝實錄』, 고전번역원.

「南炎浮洲志」, 박희병 표점·교석,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2005.

「安憑夢遊錄」, 소재영, 『기재기이연구』 영인부록, 민족문화연구소, 1990.

「元生夢遊錄」, 박희병 표점·교석,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2005.

박희병·정길수 옮김, 『이상한 나라의 꿈』, 돌베개, 2013.

2. 論著

김명호, 「김시습의 문학과 성리학 사상」, 『한국학보』 35, 1984.

김수연, 「사상전환기 지식인의 방황과 신념 모색, <남염부주지>」, 『고소설연구』 33, 2012.

김춘택, 『우리나라 고소설사』, 한길사, 1993.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5.

김현양, 「16세기 소설사의 지형과 위상-이념의 서사, 흥미의 서사, 욕망의 서사」, 김현양 외, 『묻혀진 문학사의 복원』, 소명출판, 2007.

문범두, 「<남염부주지>의 구성방식과 문제의식」, 『초기한문소설의 작품세계』, 국학자료원, 2005.

성낙훈, 「한국당쟁사」, 『한국문화사대계』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5.

소재영, 『기재기이연구』, 민족문화연구소, 1990.

신상필, 「≪기재기이≫의 성격과 위상」, 김현양 외, 『묻혀진 문학사의 복원』, 소명출판, 2007

신성환, 「사육신담론의 전변과 조선후기 시가의 수용양상」,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11.

신해진, 「임제의 <원생몽유록>」, 『조선중기몽유록의 연구』, 박이정, 199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경호,『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2000.

양승민,「<원생몽유록>의 작자문제의 허실」, 우쾌제 편,『원생몽유록』, 박이정, 2002.

엄기영,「≪기재기이≫의 창작 방법 연구」,『16세기 한문소설 연구』, 월인, 2009.

____ ,「서사구성 방식과 의미」,『16세기 한문소설 연구』, 월인, 2009.

원용문,「<원생몽유록>의 작자론적 고찰」, 우쾌제 편,『원생몽유록』, 박이정, 2002.

유기옥,『신광한의 ≪기재기이≫연구』, 한국문화사, 1999.

유탁일,『韓國古小說批評資料集成』, 아세아문화사, 1994.

윤세순,「중국소설의 국내 유입과 향유 양상」, 김현양 외,『묻혀진 문학사의 복원』, 소명출판, 2007.

윤승준,「김시습의 귀신론과 ≪금오신화≫-<남염부주지>의 분석을 중심으로-」,『국문학논집』14, 1994.

이가원,「<몽유록>의 작자 소고」, 우쾌제 편,『원생몽유록』, 박이정, 2002.

이병휴, 「사림파의 祀典개혁운동」,『조선전기사림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일조각, 2002

이영두,「단종충신 추복 논의와 세조의 사육신」,『사학연구』98, 2010.

임형택,「현실주의 세계관과 ≪금오신화≫」,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1.

장덕순,「몽유록소고」, 우쾌제 편,『원생몽유록』, 박이정, 2002.

정출헌,「<六臣傳>과 <元生夢遊錄>-충절의 인물과 기억서사의 정치학-」,『고소설연구』33, 한국고소설학회, 2013.

정학성,「<원생몽유록>연구」, 우쾌제 편,『원생몽유록』, 박이정, 2002.

정환국,「<설공찬전>의 파동과 소설 인식의 추이」, 김현양 외,『묻혀진 문학사의 복원』, 소명출판, 2007.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변모」,『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____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5.

조현설,「형식과 이데올로기의 불화-16세기 몽유록의 생성과 전개-」, 김현양 외,『묻혀진 문학사의 복원』, 소명출판, 2007.

____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신이 인식의 의미」, 김현양 외,『묻혀진 문학사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복원』, 소명출판, 2007.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사, 2004.

황패강, 「원생몽유록」, 우쾌제 편, 『원생몽유록』, 박이정, 2002.

Collection @ chosun